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영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2월 1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조계종이 지난 해부터 중앙종무원을 대상으로 매달 1회 실시해 온 포살법회를 이번 보름(22일)부터 지방 종무원들에게도 확대실시키로 했다. 참회를 통해 거듭나겠다는 의지이다. 포살(布薩)은 정진 결제일로서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각자 범한 죄를 참회하는 것이다. 재가와 출가는 포살에 있어 그 내용상 차이가 있다. 승가의 포살의식은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이면 온 대중이 모여 생활을 점검하고 계목을 외워 죽시 계를 범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재가는 매달 6일의 청정한 날을 정해 6재일(六齋日)이라 하여 그날만은 꼭 8계를 지켜나가도록 강조하고 있다. 지계(持戒)는 해탈의 근본이라고 한다. 지계정신(持戒精神)으로 그릇된 욕망을 이겨가도록 힘써야 할 때이다. 〈편집자 주〉

지은 죄를 고백하면…

과거의 몸으로 지은 악업(惡業)을 스스로 뉘우쳐 방종에 흐르지 않으면, 지혜가 생겨 죄를 제거한다. 과거의 입으로 지은 악업을 스스로 참회하여 거짓말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겨 죄를 제거해 없앤다. 과거의 마음으로 지은 악업을 스스로 참회하여 마음이 항상 청정하면, 지혜가 생겨 죄가 없어진다. 〈채화위왕경〉

거짓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들어 귀의하고 제 저지른 죄를 고백치 않으라. 잘못을 뉘우쳐 악한 마음을 씻어내면 해도탈지 못함이 없느니라. 〈범천신착경〉

백천겁 동안에 모인 온갖 악행이라 할지라도 불법(佛法)의 힘으로 경손히 사유하면 일일일시에 남김없이 소멸시킬 수 있다. 〈대집경〉

간악 중생이 여러 악업을 짓고도 숨기어 뉘우침이 없어서, 마음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인과업보를 인정하려 않고, 슬기있는 이에게 묻는다든가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온갖 훌륭한 의사가 달려들어 그 병을 고치려 한대도 고쳐내지 못할 것이다. 〈열반경〉

어리석음에 상중하(上中下)의 세 종류가 있다. 악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마음에 싫증내는 때가 없는것, 이것이 상(上)에 속하는 어리석음이다. 몸으로 악을 지었을 때 뉘우치는 생각이 있어나도, 같은 행자(行者)에게 고백 참회하여 제 악행을 드러내려 않는 것, 이것이 중(中)에 속하는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여래에 의해 제정된 계를 의지함으로써, 중죄를 짓지 않고 어기는 것이 조금일 경우, 이것이 하(下)에 속하는 어리석음이다. 〈보운경〉

뉘우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계(戒)를 지킨다 하고, 마음에 뉘우치지 않는 것을 계를 깬다고 한다. 〈선계경〉

경·율·론

"三藏 체계교육 절실" 82%

"승가교육 수행·교화에 부적합" 60%

10명중 3명 "의지하는 율·논장없다"

가산불교문화硏 조계종 스님 212명 설문

법랍이 15년 이상의 스님중 15%가 경·율·론 삼장(三藏)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0명중 3명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율장이나 논장이 없는 등 80%이상의 스님이 삼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이같은 사실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이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 승가 소의삼장(경·율·론)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불교성전을 총칭하는 삼장(三藏)에 관해 처음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승가교육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충격적인 결과여서 삼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모두 2백12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먼저 수행에 의지하고 있는 경전을 묻는 질문에서는 〈금강경〉이 32%를 차지했으며, 〈조사어록〉(24.2%) 〈화엄경〉(8.2%)과 그외 법화, 정토, 관음경류 등이 꼽혔다. 그러나 이는 조계종 소의경전이 〈금강경〉임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로 스님 개개인이 의지하고 있는 경전이 다르거나 〈금강경〉이 조계종 소의경전으로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율서(律藏)로는 〈사분율〉이 21.6% 〈범망경〉은 34.1%였으며, 26.6%가 '없다'로 대답해 율장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서(論藏)에 관해서도 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신론〉을 꼽은 스님이 41.6%, '없다'는 응답도 무려 28.3%를 차지해 경·율·논 삼장에 대한 종단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이 확립돼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스님들은 현재 승가 교육체계와 방법 및 내용이 현시대의 수행과 교화에 적합하다(36.5%)는 생각보다는 적합하지 않다(60.3%)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삼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82.2%)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선원, 중앙승가대, 지방 강원 스님과 포교현장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40대 주지 등 총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 2백12명의 법랍은 '20년이상'이 29.8% '15년이상' 10.8% '10년이상' 9.9% '5년이내'가 49.5%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명우 기자〉



◇월주스님 김수환추기경 등 종교사회지도자들은 지난 12일 현사국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한보금융특혜를 가능케한 외압의 실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보외압 실체 국민의혹 밝혀라"

종교·사회지도자 75명 시국성명…정치자금 법제화 요구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박형규 목사, 고은 시인 등 종교·사회단체 지도자 75명은 지난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현시국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한보사건과 관련, "5조원의 금융특혜를 가능케 한 외압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김영삼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토론회에 이어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파동에 이어 터져나온 한보사건을 '건국이래 최대의 금융특혜비리'로 규정하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금지 등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각계 지도자들은 "한보사건은 현정부의 통치행태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경제난과 맞물려 국민을 분노와 허탈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교계 등 사회각계가 연합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성명에는 고건 명지대 총장, 서영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김성수 전 성공회주교, 이세중 전 대한변협회장, 김종립 흥사단이사장 등 각계인사 75명이 서명했다.

망명 황장엽비서 한국불교와 인연



지난 12일 중국 북경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황장엽 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한국스님의 북한방문을 초청하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한국불교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황이 한국스님들의 북한방문을 최종 승인했으며,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원스님(미국 거주)은 서울신문기자와의 통화에서(13일자 보도) "지금까지의 8번 북한行중 5번이 황장엽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황장엽은 일본에서 서옹스님(고불총림 방장)과 함께 불교를 공부한 조선불교도연맹 홍화두고문과도 긴밀한 사이로 한때 불교에 귀의했으며, 불교적 정서를 지닌 인물로 알려졌다.

"평일실시 종교와 무관"

총무처, 조계종에 회신

총무처는 지난 13일 조계종 총무원의 '국가고시 평일실시 철회및 총무처장관 발언에 관한 건'이라는 2차질의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7급공무원 평일실시는 전임장관 재임시 조정된 것으로 국가시험이 특정종교와 관련되어 결정되었거나 향후 다른 국가고시로 평일실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조계종은 답변이 불충분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숙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문화유산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는 한국의 美를 상징하는 민족문화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이 땅의 천년불심이 스며 있습니다. 불교문화재는 그래서 성보입니다.

불교문화재를 바르게 이해하면 무언(無言)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숨결과 예지 그리고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적 미감과 정서의 원형질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2월 테마여행 — 통도사

가람배치로 본 자연과 인간의 조화

영축산 기슭에 자리한 불보종찰 통도사의 가람배치는 독특합니다. 넷물을 따라 동서로 길게 상로·중로·하로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과 불상을 안모신 텅빈 대웅전(국보 290호)에서 통도사의 근본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웅전 연화문 축대의 정교함과 영산전의 팔상탱화, 가섭존자가 미륵불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의 봄발탑, 감지금니화엄경변상도 등 통도사 국보·보물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람과 자연과 인간과 불심의 조화에 또한번 감탄하실 겁니다.

통도사 박물관장이며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인 법하스님이 안내 강의하는 '불교문화 테마여행' 첫 회에 동참하시어 97년을 더욱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참가 안내

◇출발: 2월 23일(일) 오전 7시 · 조계사 앞
◇안내: 법하스님(통도사박물관장) ◇회비: 3만원(중식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한주여행사 (02)738-81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5333(임동수)
입금후 한주여행사로 연락바랍니다.
※ 참가자에게 기념품(단주)과 아침식사대용 카로리일과 원비D를 드립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 ㈜한주여행사
후원 :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 일양약품

신도시 포교 '발등의 불' 11면
출판가 인도·티벳 '열풍' 10면
마음으로 병다스린다 9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공해속에 노출된 스님들의 피부관리! - 이제부터는 신토불이 무공해 미용비누가 지켜드립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수행하시는 던 스님, 이제는 각종 유해 대기속에 어쩔수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피부관리를 못하시는 스님 - 이제 세안, 샤워 하실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 면역 피부 미용 비누를 사용하세요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 면역 피부 미용비누입니다.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이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 · 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 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C · L · E · A · N

사 설

'나라 살리기'에 나서자

노동법, 안기부법 등의 날치기악법 충격에 이어 한보사태가 터져서 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정경유착 비리사건인 '한보게이트'로 국가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정계·관계·재계의 검은 고리가 고구마줄기처럼 들춰지자 국민들은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치고 있다.

이러한 천하대란의 파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하여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김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시국성명을 통해 개혁의 후퇴로 인하여 권력형 부정부패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정치권력자들은 이러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애국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난국타개의 주춧돌로 삼기바란다. 우리는 더이상 부정부패와 불의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가 귀순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북관계 등 풀어야할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계등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시국성명을 계기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고 위기정국을 타개해야 하고 이를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김대통령의 말대로 철저한 수사. 성역없는 수사가 단행되고,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 주변의 가신들이 몇몇 소환, 구속되고 있지만 야당이나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른바 '한보리스트'에는 더 많은 측근 인물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의혹을 받고 있다. 어물어물 넘어갈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썩은 곳을 도려내지 않고 덮으려 한다면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둘째, 날치기 위기정국과 권력형 한보비리사태를 일으킨 현정권은 국민앞에 깊이 참회하고, 책임있는 관계와 정치계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차제에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인 패거리 정치가 낳은 구조적 부정부패를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혼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안기부법의 재심의를 비롯하여 실종된 정치개혁, 경제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 등 각계각층에서 청원한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혁입법들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한보사태로 물려버리기 쉬운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등의 날치기 악법을 바로잡는 재심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은 구태의연한 낡은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갈등과 대립으로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기틀을 다지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당리당략에 매달려 독선과 아집과 무책임의 정치행태를 버리고, 건국최대 위기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이다.

다섯째, 우리 모든 국민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여 민주통일정토를 건설해 나가는데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우리부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데 서로서로 등불이 되자. 우리 모두 연기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불국정토를 일구어내는 보살도를 발휘할 때이다.

나라가 민주화되고 민족이 통일되어 세계의 문화중심국이 되도록 '나라살리기범국민운동'에 적극 동참하자.

열린마당

지역 상임법사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녹원)가 지난 1월 31일 관할지역을 4개로 나누고 지역포교를 전담할 상임법사(포교사) 단을 출범시켰다. 전법의 해를 맞아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짐은 물론 다른 교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직지사 법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타교구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며, 중앙종무기관의 지원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정보교환등 지역포교 성과 커… 활동비 지급필수

법등 〈직지사 부주지〉



지난해 11월 직지사교사불자회와 운전자불자회가 창립되었다. 당사자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구미지역 포교를 전담한 상임법사(포교사) 진오스님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이같은 성과를 직지사가 관할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산, 포교활성화를 기해보자는 교구의 의지를 반영해 지난 1월 31일 이미 법사가 배치되어 있는 구미를 포함 상주·문경, 예천·김천 등 5개 지역에 상임법사를 임명했다.

포교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사찰소임자보다는 법사가 배치되어 활동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소임스님들은 가람수호와 대중외호, 신도교육 및 상담 등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포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1인 이상은 되어야 효과적인 포교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들 법사들에게는 교구예산에서 매월 1백만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올해안에 2명의 법사를 추가로 임명할 계획이다.

직지사교구 상임법사(포교사)단은 각 지역에 맞는 포교방법과 교사 운전자불자회 등 직능단체와 직장법회의 창립은 물론 기존 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지역불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임법사단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비협조적인 사찰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 재임명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사단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상임법사단은 매월 모임을 가져 활동성과를 점검·비판, 효율적인 포교방법의 노하우를 나누고 신행단체 창립에 관한 정보도 교환한다. 또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타종교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공동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도 4개 지역에서 각 사암연합회와 긴밀히 유대해 규모있게 진행하면서 봉축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포교는 무수히 얘기되어 왔다. 그러나 법사가 없어서 법회를 봉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단체가 있었어도 활동이 미약한 곳도 있다.

이제는 막연한 포교가 아니라 지역의 불자들을 구성하고 비불자를 불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질갖춘 재가포교사 활동공간 넓혀야

효종 〈조계종포교원 연구실장〉



조계종은 지난 1982년부터 포교사제도를 시행하여 침체된 포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간 포교사들의 역할과 그들이 포교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는 매우 눈부신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단 개혁 이후 각 교구본사와 말사에 유급포교사를 두도록 포교법(포교법 제34조 2항)에 규정하여 각종 포교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동안 어느 본사에서도 실시되지 않은 채 사문화되어 왔으며 각급 단위 사찰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여력이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종단 개혁 이후에는 포교사 고시를 통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재가 포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배출된 포교사는 고시를 통하여 배출된 5백여명을 포함하여 82년이후 2천7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재가포교사를 양성, 배출하는 틀은 있으되 위상과 활동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각 본사의 실정에서 당장 유급 포교사를 임명하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같은 현실에서는 먼저 관내에 거주하는 포교사를 파악하여 이들을 지원봉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말 휴일등에 사찰 관광객을 상대로 포교와 문화재 안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외국어 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외국인을 상대로 사찰안내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종단차원 의식·교육 통일안 마련해야

주경 〈수덕사 포교국장〉



지역포교사가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교사들의 입기를 보장하고, 독자적인 포교사무실을 둬 포교사의 지역적 연고를 뚜렷히 해야 한다. 이는 신도에게 스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포교사들로 하여금 사명감과 자신감 책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하는 중요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지역포교사는 불자들이 재적사찰 없이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도들이 지역 또는 소속사찰을 일탈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포교전략을 강구해 전법활동을 펴야 한다. 따라서 교구본말사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필수요건이다.

또 포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각자의 포교 노하우를 나누는 동시에 해당지역에 구성돼 있지 않은 신행단체 창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단과 교구본사는 재정 및 프로그램을 지원해 포교사들의 활동을 도와야 한다. 특히 불교의식 및 기본교육 등의 통일은 종단과 교구본사의 몫이다. 또 활동에 비협조적인 사찰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 재임명에 불이익이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법사단의 활동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어

미리 가보는 지옥

일본의 히로사치야교수가 쓴 〈저승관광〉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49일간의 명소코스를 거쳐 지옥 순례에 들어간다.

지옥에는 팔대열(八大熱)지옥과 팔대한(八大寒)지옥이 있는데 〈저승관광〉은 지하 5만㎞ 지점에서 시작하는 팔대열지옥을 여행한다.

제1코스는 등활지옥. 살생한 죄인이 가는 곳이다. 다음은 흑승지옥. 먹줄로 죄인의 몸에 바둑판처럼 눈금을 긋고 그 선을따라 죄인의 몸을 쇠도끼나 톱으로 절단한다. 죄인의 살덩이는 차가운 바람이 불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와 형벌이 반복된다. 또 산과 산사이에 쇠줄이 걸려있어 줄타기를 하는데 반쯤 건너가면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에 거꾸로 떨어진다.

이런 형벌도 있다. 쇠줄 그물을 불에 달군후 그 그물속으로 죄인을 밀어 넣는다. 뜨거워 몸부림치면 칠수록 쇠그물은 죄인의 몸에 감겨든다.

흑승지옥에는 이승에서 도둑질을 한 죄인이나 돈을 위해서 사악한 짓을 한 돈 많은 망자가 떨어지는 곳이다. 지옥은 순서에따라 뒤의 것일수록 깊고 괴로움도 심하다. 이지옥에서는 12조8천억년간 고통을 당해야 한다.

살생·도둑질에 사음의 죄를 더한 중합지옥, 음주의 죄를 보탠 규환지옥을 지나면 거짓말이 심가된 대규환지옥이 나온다. 대규환지옥에서는 불에 달군 날카로운 쇠바늘로 입술과 혀를 꿰뚫는다. 또 뜨거운 쇠집게로 혀를 뽑는 형벌도 있다. 혀를 뽑고 나면 잇달아 돋아나고 또 뽑기 때문에 고통은 계속된다.

초열·대초열 아비(무간)지옥을 거쳐 저승관광은 지옥순례에서 천상계로 넘어간다. 천지간과 극락순례를 마치고 여행의 종착역에 도착한 저자는 말한다.

"지옥에서 극락까지 순례하고 돌아온 코스와 같은 세계가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한보태풍에 말려 있는 이들은 음모·진짜배후·깃털·몸체 등을 논할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 검찰의 수사를 피해가도 평생 무간지옥을 면치 못할 것이다.

봉선사 통신강원

통신강좌 전문 외 불교강부

■ 스님을 위한 전문반
- ●사미과 ●사집과
- ●사교과 ●의전과

■ 재가불자를 위한 교양반
- ●교리강좌 ●경전강독
- ●교양의식 ●교양불교사

문의처 (0346)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0691

현대만평

박구원



의지하면 쉬운데



-96 뉴욕 하이파이 오디오쇼와 96 서울 하이파이 오디오쇼에서 수많은 엔지니어가 극찬한 하이앤드 스피커

EXCELLENT! "GOOD„

DISPLAY THE PERFECT SOUND.....

"내 귀를 의심케 했다" ..... 왕영창(일본음향 전문엔지니어)
자랑스럽다 ! 이런 하이앤드 소리는 처음이다!
..... 박병윤 (마샬전자대표 음향전문수입상
비로소! 한국인만의 소리를 찾았다
..... 박광수(실버웨드(주)부장 국산앰프제조)
관객을 향한 "원음에 가까운 소리"에 놀랍다 ..... 김희경(작곡가)

■ 한국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하이엔드 제품 ■

최고 음향기기를 최소 비용으로 설치 및 대여

첨단 음향장비를 두루 갖추고 음성불사를 합니다.

●음향기기 설치 : 법당, 경내 일체, 사무실
●음향기기 대여 : 각종 실내 문화 행사, 야외 대형 이벤트

진절하고 완벽한 서비스! 철저한 A/S! 만족!

* 저희 관음음향연구원에서는 소비자 엔지니어의 요구에 부응코저 최고의 하이앤드 제품을 언제든지 시청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관음음향연구원 별관 시청실 3층)

설치실적
- 인천 용화사
- 단양 구인사(천태종 총본산)
- 관악산 연주암(설치)
- 화성 신흥사 청소년수련원
- 옥동 청소년회관
- SBS프로덕션 STUDIO SETTING
- 한국음악방송 녹음실(여의도소재)
- 서울은행본점 방송국 녹음실
- 대구은행본점 방송국 녹음실
- 원불교 청주 교당
- 기타

라이브 공연 대여 실적
- 연등축제(부처님 오신날'96) (동대문 운동장)
- 시청앞 연꽃점등식('96)
- 보리수합창단 열린음악회(조계사 앞마당)
- 용문사 은행나무 축제(용문사)
- 화엄사 문화대축제
- 문화체육부 주최 국악대제전(88마당)
- 궁중문화회주최 국악대제전(덕수궁)
- 중앙대학교 찬불동요 사육제(연강홀)
- 기타

Ginnara (음악의신)
21세기 음향문화를 선도하는 —
관음음향연구원 · 관음프로덕션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82-1
TEL: 863-9649(代), 859-1950(直) FAX: 864-1066

'금강경' 소의 32%뿐…적합성 논의일듯

가산불교硏 「승가삼장」 설문조사 분석

기본교육 부재… 수행-교화경전 불일치
사상교육 근본 경전 '아함경' 추천 눈길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승가공동체의 교학과 수행체계의 현주소는 '정체성이 희박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교학체계 및 수행공동체의 뚜렷한 정체성 확립이 불교발전의 요체임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결과는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이를 계기로 승단의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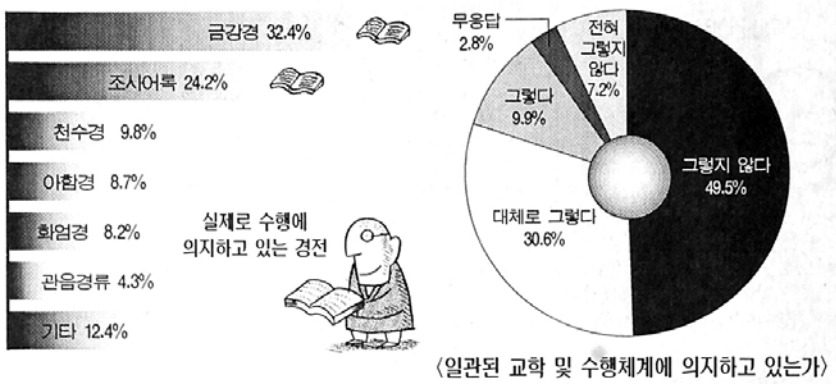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는 △삼장(三藏) 및 선장(禪藏)을 포함한 교학체계에 대한 이해 측정 △교학체계에 대한 수행자 개개인과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확인 △수행체계와 교학체계와의 상관관계 여부 △교화주체로서의 승가구성원의 대사회적 역할 점검을 위한 교화용 경전과 수행주체가 의지하는 경전과의 일치여부 등 크게 4가지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이러한 4항목의 결과는 그동안 눈감아 왔던 부끄러운 승가교육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삼장 및 선장을 포함한 교학체계에 대해 대부분의 스님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스님들이 실제로 일관된 교학체계나 수행체계에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49.5%) '대체로 그렇다'(30.6%) '그렇다'(9.9%) '전혀 그렇지 않다'(7.2%)는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스님들은 그 이유로 '승가내 지도 및 교육체계 미비'(47.8%) '지도자 부재'(21.1%) '수행체계와 실생활(현사회)과의 부조화'(18.9%)를 지적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율장이나 논장이 없다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설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기본교육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체적으로 '불교문헌의 체계'나 '근본교학체계개설' 등 종지나 종론에 근거한 '종학(宗學)의 체계'가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전의 경우 스님들은 금강, 조사어록, 화엄, 법화, 정토, 관음경류 등 공동체적 일관성 없이 산만한 소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강원의 기본교과과정에는 없는 〈법화경〉 등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이 자신이 의지하는 경전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스님 각자에게 있어 종단교육상의 교학전승과 개별적 수행체계가 서로 유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교학체계와 수행체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종론에 입각한 삼장체계 확립이 필요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응답자의 80%가 개인적으로는 수행을 삼장에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적인 교학체계나 수행체계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율·론 삼장을 비롯한 선장 및 어록 등이 종론에 입각해 체계적으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선요〉 〈선문촬요〉 〈선가구감〉 〈육조단경〉 〈임제록〉 등 스님 개개인의 임의적 선택에 의한 개별서를 수행의 소의선장으로 삼고 있다는 것 역시 종론에 입각한 선장체계 확립의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관된 교학 및 수행체계에 의지하고 있는가〉

스님 각자의 수행을 위한 경전과 교화방편을 위한 경전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응답자의 22.5%가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경전을 교화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신도들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거나 '재가 교화방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스님들의 역량부족 보다는 교화주체인 스님들의 사상과 이를 기초로 한 교화가 함께 수반돼야 하는 수행문화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이번 설문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목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함경〉 등 초기경전을 소의경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됐다는 점이다. 승가교육에 필요한 삼장으로 〈아함경〉을 추천한 경우가 많았다(30%)는 것은 포교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사상교육을 위해서는 근본경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또 〈금강경〉이 '조계종 소의경전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반 수(51.4%)에 그친 이유로 '교화에 응용하기 어렵다'거나 '실제 수행에 도움이 못된다'는 견해가 제시됨으로써 소의경전에 대해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한 지관스님은 조사결과에 대해 "예상했던대로 우리 승가 구성원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승가 스스로가 절실한 반성과 함께 개선의 전망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종단 구성원 전체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설문에 나타난 여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참회의 삶'을 살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 하 수 〈명성여중 교장〉

흙탕물이 맑아지듯

지난 1월에는 인도의 불적(佛跡)을 순례(巡禮)할 기회가 있었다. 사위성을 참배하면서 살인마로 잘 알려진 '앙구리마라'가 거처했다는 동굴을 들여다보게됐다. 그때 살기(殺氣)등등한 '앙구리마라'가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살해하는 그 당시의 참혹했던 광경이 상상되었다. 동시에 부처님의 엄숙하고 근엄한 위용과 설법에 교화되어 엎드려 참회(懺悔)하는 '앙구리마라'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저와 같은 무서운 죄를 지은 중생도 용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앙구리마라의 질문에 부처님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여 뉘우치는 사람은 마치 바다에 흘러온 흙탕물이 맑아지듯 그 과거의 죄업이 사라지는 것이다"고 답하신 것이다.

우리 범부 중생들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참삶의 길은 그 죄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참회하여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소년들 중에는 심성과 행동이 매우 거칠어 어른들이 생각조차 못하는 일들을 저질러 종종 사회를 혼란케 한다. 내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가끔 몇몇 학생들이 학생 신분을 망각하고 탈선의 대열에 끼어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불심(佛心)깊은 선생님들이 탈선한 학생들에게 학교 법당인 연화당(蓮華堂) 부처님 앞에서 참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시적인 잘못을 참회하고 새사람이 되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온다. 하지만 업장이 두터운 탓인지 진정으로 참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 학교장으로서 그만두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최종 결정을 내릴 때면 내 마음은 항상 괴롭다. 그리고 스스로 반문해 본다. 그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였는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나 또한 진정으로 참회하지 못함이 아닌가? 〈혐책경(嫌責經)〉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말로는 참회한다 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어찌 참회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곧 새 학년도가 시작된다. 저 999명을 살해한 살인마 앙구리마라도 진정으로 참회하여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듯이 새 학년도에는 나부터 참회의 삶을 실천해야 하겠다고 다짐한다. 참회란 구호가 아니라 실천하는 생활 그 자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시 론

위기의 본질 바로 보자



임 홍 빈 〈고려대 교수 · 철학〉

노동법, 안기부법 파동으로부터 시작해 한보로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일차적으로 정치권의 무능과 욕망이 결합해서 빚어낸 난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심지어 시중에는 일련의 사건들이 정권창출을 위한 일련의 주도면밀한 시나리오라는 설도 떠돌고 있다. 공공매체에 대한 기왕의 불신이 그같은 견해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고질병 무엇인가

사실 현대의 매체들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생산, 가공하고 또 분배하는 정보공장들이다. 따라서 이 정보처리의 과정에서 사태가 왜곡, 전달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낭설들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현재 나라 자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작금의 사태는 미봉책이나 임기응변이 아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처방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위기의 현실은 어떠한 과제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는가.

첫째, 부정 및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의 도덕성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비리를 원천적으로 가능케 한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가령 관치금융이 가능한 금융제도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치자금법 등이 개선되지 않는한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는 차기정권에서도 항상 되풀이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쉽게 용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엄연한 범법자도 자기 보스에게 잘만 보이면 재기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세속적인 의미에서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이다. 국가경제를 혼란케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도 줄만 잘 타면 다시 재벌로 성장할 수 있다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서는 곤란하다. 아무리 생업에 바쁘고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더라도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서 한때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셋째, 우리 정치의 고질병은 연고주의다. 최근 들어 연고주의는 극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개인들간의 사적인 관계에서만 작용해야 할 연고가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인사나 정치적 배려에서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의 구별이 모호한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가령 선거철만 돌아오면 지역이 정치적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같은 전근대적인 정치문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지연과 함께 학연이나 성에 따른 차별이 지배하는한 정치문화는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 것이다. 또 정치가 지식과 경륜, 판단력 등은 없어도 마당발처럼 정치판을 헤집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넷째, 한보의 거대한 철강공장은 적정성장과 최대성장의 차이를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사건이기도 하다. 삶의 질이나 효율한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무작정 소비하는 현대사회는 분명 자기파괴적일 수 밖에 없다. 무한욕망과 무한소유를 조장하고 이를 방치하는 정치는 생명지향적인 정치로 볼 수 없다. 거대산업에 과도하게 국가경제의 운명을 의탁할 때, 우리 삶의 공동체는 해체되고 우리의 강과 바다는 죽어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21세기의 생존조건에 적합한 최적성장의 의미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생태학적 전망과 경제원리가 접목되지 않는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

책임있는 결단 아쉽다

예컨대 수요공급이라는 시장논리를 넘어서는 생태적 전망이 요구되는 것이다. 물을 비롯한 자원과 에너지원이 빈약하고 땅이 좁은 우리나라가 과연 어느 정도의 거대한 중화학공업 시설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당연히 이런 과제들은 우리 모두의 각성과 희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정치인이나 재벌, 선택된 지식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희생을 자처하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과제의 해결은 점점 요원해 질 것이다. 실로 책임있는 사람의 책임있는 결단이 무엇보다 아쉬운 시점이다.

선망부모와 모든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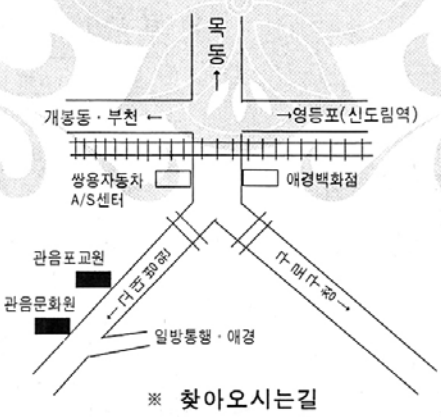
천 도 대 법 회

천도재란 고인이 생전에 지은 모든 악업이나 원한관계 등을 해소하고 부처님의 자비로 극락세계에 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무명업식과 윤회의 굴레를 벗어납시다.

행 사 특 징

1. **영가 보살계 수계식** : 영가들에게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도록 영가 수계식을 거행하여 불명을 지어주고 보살계를 전해줌으로써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큰스님 초청법회** : 영가천도는 법이 높으신 큰스님을 모시고 성대하고 구족하게 치루어야 영가들을 올바로 천도할 수 있습니다.
3. **독경대회** : 천도재에 참가하시는 신도님들이 영가들에게 부처님 법을 들려주기 위해 천도재가 열리는 3일 동안 24시간 조를 편성하여 쉬지 않고 법화경을 독송합니다.
4. **공연** : 천도재를 성대하게 치루어 영가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풀이 춤과 명창들을 초청하여 예술제로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5. **전통작법** : 불교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식으로 영가를 위로하여 좋은 곳으로 천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6. **법공양** : 구산 큰스님 카세트 테잎「생활불교의 길」 일멍 스님 강의「염불의 바른 길」「천수경 강의」카세트 테잎

영가 천도재 법사 · 예술인
성수 큰스님
혜정 큰스님
박병천님(인간문화재) 외



※ 찾아오시는길

행 사 일 정

- 일시 : 3월7일 ~ 9일(음 1월 28일 ~ 2월 1일)
- 장소 : 관음포교원(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82-1/전화 863-9649)
- 내용 :

3월 7일	10시	입재 및 전통작업에 의한 천도의식
		성수 큰스님 법문
3월 8일	10시 30분	성수 큰스님 법문
	14시	혜정 큰스님 초청 법문
3월 9일	10시 30분	혜정 큰스님 법문 및 영가 보살계 수계식, 회향
	오후	공연(천도굿, 박병천(인간문화재-진도굿)님과 국악인들)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관음포교원 · 관음문화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82-1 TEL: 863-9649(대) FAX:864-1066

정월대보름 법회

조계사(02)732-2445

1백일기도 회향법회 22일 오전10시
영산대재불사와 방생법회 24일
8만대장경 정대불사법회 3월1일~3일

봉은사(02)511-6070

방생법회 오는 22일 오전6시 실상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02)723-6258

성지순례 오는 22일~23일 통도사
출발은 오후5시 종로4가 파출소 앞

덕유사회복지관(032)325-2161

민속놀이 한마당 오는 22일 오후1시~오후5시 부천 중흥고등학교 운동장
이번 행사에서는 윷놀이 신발던지기 산가지놀이 투호 제기차기 줄다리기 등이 펼쳐진다.

봉선사(0346)555-5974

방생법회 19일(시간 미정) 사자산 법흥사

월정사(0374)34-6664~5

1백일기도 회향법회 오는 22일 오전10시

삼광사(051)808-7111

철야정진법회 18일부터 24일까지
22일 오전11시 연등점등식

대각사(051)245-8781

특별법회 22일 오전11시~오후2시
오후7시~9시30분

대구 사원주지연합회(053)427-2963

방생법회 오는 22일 오후4시 경주 감포 나정해수욕장(82개 사찰동참)
위령제 중요제 달맞이행사도 열린다.

불국사(0561)746-9913

다보탑 석가탑 탑돌이 철야정진기도
22일 저녁6시30분~23일 새벽3시5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가두캠페인 111,629원 △불지사 500,000원 △대구자비회 300,000원 △사찰홍보 273,000원 △문사수법우회 100,000원 △덕소천주교 98,000원 △부산대불련 145,800원 △광우스님 500,000원 △김사리자 310,000원 △마혜옥 100,000원 △임효정 150,000원 △김금숙 100,000원 외 41명
〈13일 현재 총 87,718,409원〉

- 후원금 접수 : (02)3672-5373
- 국민은행 : 818-21-0179-960
  예금주 : 최석호

교차로

'회엄경' '이세간품' 법공양



도문 대각사 조실은 지난 1일 〈대방광불화엄경〉 〈이세간품〉을 법보시용으로 발간, 무료 배포하고 있다. (02)765-1376

대구BBS 1백일 법회



법타 불교대구방송 사장 스님(은해사 주지)은 오는 20일 오후5시 대구진각회관 7층 문화회관에서 불교대구방송 개국 1백일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초청법회



정우 구룡사 주지(불교TV 전무이사)는 지난 16일 오전11시 구룡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26일 다보법회서 설법



혜담 조계종총무원 호법부장 스님은 오는 26일 오후2시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봉행되는 다보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강화경찰서에 위문품

계성 강화사암연합회 회장 스님(법왕사 주지)은 지난 6일 경승 서강·무염(전등사) 혜성(백련사)스님들과 함께 강화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 직원과 전경들에게 3백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인덕어린이집 개원



성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삼천사 주지) 스님은 인덕어린이집을 오는 3월 3일 개원하고 은평구내 만 0~6세의 원아를 모집한다. 스님은 또 5월경 인덕원 산하 어린이보호, 노인보호(단기·주간) 시설등을 잇달아 개원해 오는 9월경 복지관 종합회향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3천일 기도 입재



성원 선원사 주지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오는 25일 오전10시30분부터 고려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선원사 복원을 위한 3천일 지장기도 입재에 들어간다.

하나로 포럼 2차 모임



고준환 하나로포럼선정회 상임대표(경기대교수)는 오는 26일 오후5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하나로 포럼선정회 제2차 모임을 갖는다. 이날 모임에서는 중앙일보 이은윤 종교전문기자가 '21세기와 선정문화'를 주제로 발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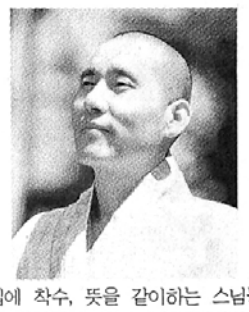
부산불교실업인회 6돌 법회



김정태 부산불교실업인회장은 오는 24일 오후6시30분 해운대 마리나센터에서 부산불교실업인회 창립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재단세워 청소년 수혜 늘릴 터"

중암장학회 이사장 원 학 스님



"한국불교 미래는 청소년 불자들에 달렸습니다. 그들이 제때 배움에 충실하고 웅지를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종단의 3대사업중 하나가 교육이고 보면 장학회 설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불사라 할 것입니다."

중암장학회 초대 이사장 원학스님(조계종 종회의원, 조계사 부주지)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연내로 2억원의 기금을 확보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며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암장학회는 지난 95년 총재 현근스님(조계사 주지)의 발원으로 추진됐다. 현근스님의 첫 법어집 〈중생의 삶 깨달음의 길〉 출판수입금 전액을 기초기금으로 장학회 설립에 착수, 뜻을 같이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성금 1억5천여만원이 모아졌다. 장학금은 매년초 대학 및 대학원생 10명에게 각 70만원씩, 중·고등학생 10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지급한다. 97년도 첫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란〉

게시판

모집 신입생=부산불교육대학(학장 이하우)은 97년도 포교사반, 교리반, 수화반 신입생을 모집한다. 포교사과정은 근본불교사상, 한국불교사, 선사상 등을 강의하며 교리반에서는 불교학 개론, 경전 개설, 참선실수 및 습의 등 특강을 마련하고 있다. 모집마감은 2월 28일까지.
(051)818-8659

노인대학 수강생=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범산스님)은 노인대학 97년도 수강생을 모집한다. 5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교양교육과 노래교실, 종이접기 등을 교육. 모집마감은 20일.
(051)893-5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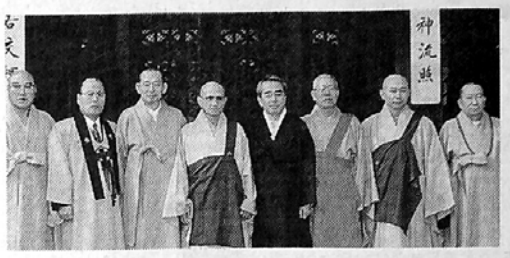
수강생=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오는 24일까지 생활영어교실, 한글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각각 3개월에 5만5천원. 또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업료는 무료.
(02)985-0161

행사 연변동포돕기 일일찻집=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오는 26일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새마당예식장 커피숍에서 '연변동포를 위한 자비의 일일찻집'을 연다. 수익금 전액은 조선족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본 연변동포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서는 연변동포에게 보낼 옷도 수집한다.
(051)464-2020

안내 소쩍새마을 셔틀버스운영안내=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스님)은 최근 서울-원주간 셔틀버스를 매주 화·토·일요일 주 3회만 운행키로 했다. 소쩍새마을을 방문코자 하는 단체(서울, 경기지역에 한함)에서는 전화신청하면 버스를 보내준다.
(0371)762-9870

부음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 부친상=13일 오전. 발인 15일 오전7시. 벽제 화장장.

유병직 불교방송 제작국차장 모친상=10일 오전. 발인 12일 오전7시. 장지 서산 선산.



불교계지도자 숲문체장관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불교계지도자들은 지난 5일 한국의집에서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태고·천태·관음종 총무원장과 진각종통리원장, 원서 조계종 초심호계원장, 지하 중앙승가대총장이 참석했다. 불교지도자들은 김장관에게 사찰문화재 복원 및 관리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7개 불교단체 총무처 항의방문

실천불교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7개 불교단체는 지난 5일 7급공무원시험 평일실시와 관련 총무처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윤응규차관, 김종양인사국장 등 총무처 관계자들은 "공무원시험 평일실시는 국민의 뜻에 따른 국정이고 특정종교와는 관계없다"고 답변했다.



관음포교원 아미타삼존불 점안식

관음포교원(원장 일명)은 지난 11일 법당에서 아미타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일명스님은 "포교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구로지역에 관음도량을 열고 삼존불을 모시게 됐다"면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힘입어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활안·은산스님 박찬수 지하철법우회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동참했다.

'97년을 뛴다

우리는 선우 기획실장 이 명 옥 씨

청소년 국제캠프·선우강좌 준비 한창



"불법을 바탕으로 선우회원뿐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신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한해를 뛸 것"이라는 것이 그의 발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중에 갇혀 있거나 경전속에 묻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올바른 신행운동과 불교의 사회화는 참다운 불교위상 정립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우리는선우 이명옥 기획실장(36)은 불법을 통해 참불자상을 세우기 위한 신년 사업계획 수립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사(佛事)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금년에도 미래불교를 심는다는 사명감으로 청소년과 군포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난 94년부터 우리는선우 일을 해오고 있는 이 실장은 국제승보공경선우회, 화랑선우회, 백련선우회에서 펼치는 모든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정도로 중책을 맡고 있다. 신년사업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돼야 한해가 뜻있게 회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재가불자들을 위한 '선우강좌'와 청소년 국제캠프가 준비중이어서 어느해보다 바쁘지만 마음만은 즐겁다. '이생에는 물론 내생까지 불교일을 하겠다'는 그의 원력때문이다.

고려원, 불교시대사, 책세상 등 잡지·출판사에서 근무하면서 불교에 심취됐다는 이실장은 "보다 더 궁극적인 불법에 접근하고 싶어 우리는선우에 들어오게 됐다"며 "교계의 선지식들과 함께 일하니 신심도 배가된다"고 즐거워했다.

김중근 기자

96년도판 현대불교합본집 발간

1996년 한 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을 묶은 〈96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제시해 온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에는 '96년 불교사의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합본집은 불교시사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그리고 신행의 길잡이가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지침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법보시하시기를 권합니다.

- 수록내용: 1996년 1년분 (60호~108호)
- 가격: 5만원(우송의 경우 별도의 발송비 5천원이 추가됩니다)
  은행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현대불교)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협 053-01-227471 · 우체국 010041-0255243
- 문의: 현대불교신문 기획관리부 (02)737-8881

월운큰스님 초청 (동국대학교 역경원 원장)

정월 대보름맞이 불국사 다보탑·석가탑 탑돌이 철야대법회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가 가내에 두루 충만하기를 기원하옵니다.

동방에서도 아침햇살이 가장 먼저 와닿는 땅 경주 토함산 자락에 위치한 불국사 대웅전 앞에 우뚝솟은 다보탑·석가탑은 우리나라 1600여년 불교 역사속에서 모셔진 수많은 탑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탑입니다.

탑은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성물로 법당에 모신 불상과 같이 성스러운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신라때부터 둥근달이 뜨는 보름날이 되면 가족끼리 혹은 이웃끼리 절을 찾아 정성스런 마음으로 탑돌이를 하면서 각자의 소원 성취를 비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번 불국사에서는 월운 큰스님(동국대학교 역경원 원장)을 모시고 지난 여러해 동안 끊어졌던 "매달 보름 탑돌이" 기도 법회를 아래와 같이 다시 계승 봉행코져 합니다.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이 성스러운 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보다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 불 기 : 2541년 2월 22일(음력 1월 15일) 토요일
5 : 30 ~ 6 : 30 저녁 공양
오후 6시 30분까지 축원문 접수
오후 6 : 30분 부터 예불, 탑돌이 법회

▶ 동참금 : 10,000원

▶ 탑돌이 철야법회 시간표

오후 ~ 6:30	접수
6:30 ~ 7:00	저녁예불
7:00 ~ 9:00	입재식 및 법문
9:00 ~ 9:20	휴식
9:20 ~ 10:20	좌선
10:20 ~ 12:20	탑돌이

오전 12:20 ~ 1:30	간 식
1:30 ~ 2:30	찬불가
2:30 ~ 3:30	참회기도
3:30 ~ 3:50	회향식
4:00 ~ 4:30	예불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주지 이설조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번지
TEL : 종무소 0561-746-9912~3 · 포교국 0561-746-1472

'구들문화 재현' 30여년 외길

산문밖의 新聞

구들연구가 최영택 씨



"조상들은 구들을 덥혀 난방도 하고 밥도 짓고 빨래 말리고 情도 나누고"

뜨뜻한 아랫목이 그리운 때이다. 구들장 끼고 드러누워 추위를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수 십년전 생각이고 구세대의 향수일 뿐이다. 요즘엔 구들이라는 말조차 사라지고 있다. 구들 대신 시멘트바닥에 온수파이프를 깐 난방장치가 널리 보급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보일러식 난방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구들의 '윗목 아랫목'을 빼앗겼다. 또 '좌식문화'로 표현되는 한민족 생활문화가 서양의 입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 하며 30여년을 구들연구에 바친 최영택씨(66, 구들학회 회장). 구들 종주국의 자부심을 지키는 인생을 산 그를 두고 난방업계서는 '옹고집 노인네'로 통한다.

최씨가 오랫동안 구들연구를 하면서 얻은 결론은 우리민족 고유의 구들이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훌륭한 발명품으로 미래 난방방식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구들은 우리 조상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민족문화의 원천입니다. 한번 불교의 중국전파 길목인 간다라나 돈황동굴에는 앉아있는 불상보다 서있는 불상이 많지만,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걸터앉은 반가상이 생기더니 우리 나라서는 주로 발을 괴고 결가부좌로 앉으셨다. 앉는 바닥이 체온에 가장 안정감을 주는 구들이라는 문화구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최씨의 구들장 인생은 6·25 한국전쟁이 터져 학도병으로 참전하면서 비롯된다. 영하 30℃의 추위를 견디다 못해 흥탄을 넣는 철상자를 깨서 고래(공간)로 만들고 흙을 덮어 구들로 쓴 것이다. 고향이 춥기로 소문난 함경북도라 구들쓰는 달이 많아 어려서부터 구들장 끼고 자라났다.

88년 '굴뚝없는 겹구들' 개발 우리것 보급 앞장
美·獨 등서 특허… '미래난방 대안' 세계가 인정

의 연료로 여러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구들을 덥히면서 그 열로 아궁이서는 밥짓고 먹거리를 장만했으며, 덥혀진 방안공기로 빨래도 말리고 천정엔 메주도 매달았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구들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생을 마쳤습니다. 죽은 후에는 구들에서 젓상도 받았습니다. 모든 삶이 거기서 비롯되고 거기서 끝난 셈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즘엔 서양식 난방법에 밀려 구들이 사라진 것 같다며 아쉬워한다. 오히려 서양은 동양회귀(東洋回歸) 현상으로 일터에서 바쁘게 돌아가다가도 집에 들면 구두를 벗고 바닥에 보다 많은 육체를 접촉시켜 휴식하고자 하는 정적 지향이 늘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우리 민족처럼 앉아서 사는 정적인 정착문화권에서는 구들난방이 십상이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보다 많은 육체를 접촉시켜 생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불상도 서계신 부처님보다 앉아계신 부처님이 더 많은 것도 구들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료인 나무하러 가는 일부터 구들에 불지피고 고치는 일에 이력이 났던 그라 충분히 응용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씨에게 구들이 '삶의 화두'로 찾아든 것은 60년 막 겨울을 벗어난 초봄. 제대후 건축회사를 다니던 그가 신문에서 '연탄가스에 일가족이 중독돼 죽었다'는 당시로서는 아주 흔한 사회면 기사를 보고 부터이다. '사람이 죽는다.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잡게된 것이다. 또 실제 건축현장서도 집짓는데 구들로 놓을만한 결좋은 '구들장 돌'의 확보가 쉽지않았고, 이미 무연탄 연료가 유행하고 있었다.

"구들개조를 위해 관련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별무소득이었습니다. 도서관, 고서점들을 온통 뒤져봤지만 별달리 없더라구요. 사실 구들은 예로부터 흔한 것이라 특별히 연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미장이 직업이 천대받아와 자료다운 자료가 없었던 것도 당연하지요."

구들연구한다고 쫓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그는 실업자가 돼있었다. 64년부터는 자료도 정리하고 실험도하며 때론 구들시공도 직접 맡아 가정생계도 거들었다. 그렇게 20여년. 마침내 88년 그는 옛구들의 명맥을 그대로 이은 현대식 구들을 발명했다. 심야전기를 이용해 아궁이와 굴뚝이 없다뿐이지 진배없는 옛구들이다. '겹구들'로 명명된 이 연구는 '획기적인 개발'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그의 겹구들 연구는 그해 〈한민족 문화원류의 원천 구들〉이라는 책으로 정리 발표됐다. '겹'이라는 불임말에서 알 수 있듯이 두개의 구들을 만들고, 각각의 구들 아래에 전기히터를 가동시켜 그 열로 방을 데우는 난방장치이다. 전기도 심야전력을 이용해 하루 종일 실내를 데울수 있어 경제적이다.

최씨는 88년 스스로 '현대전자구들'이라는 주식회사를 차렸다. 대기업들이 상업성이 떨어진다고 겹구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화가나서 시작한 것'이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등 1천가구에 겹구들을 시공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문안사의 요사채 10개 방에도 겹구들을 깔았다. 또한 발명특허만해도 미국서 4개 독일서 3개 일본서 1개를 따냈고, 제네바국제발명신기술 전시회등 세계적인 기술 전시회에서 자신이 개발한 구들로 금메달 3번 은메달 2번을 수상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세계최초로 학계 교수들과 힘을 합쳐 '구들학회'를 창립, 첫 학술발표회도 가졌다.

연탄의 등장과 함께 가스중독 사고가 늘면서 이를 막기위한 연구는 활발했다. 서양의 보일러 기술을 바탕난방에 응용한 온수보일러가 기름과 가스등으로 쉽게 연료를 바꾸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선조의 지혜인 구들의 구조 및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바로 이 일을 최씨는 화두로 잡았다. 고행의 화두풀이는 '세계난방의 종주국은 우리나라'라는 믿음의 재확인이다. 그는 당장은 국내에서 어렵다해도, 구들난방은 반드시 세계 난방문화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위영란 기자

극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 ① 성철스님 법문집에 '정토삼부경의 서방극락설은 방편으로, 이는 거짓이며 현실 이대로가 극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바 대로 삼계육도에 윤회한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② 불교에서는 인간의 질병, 예컨대 불치병 유전병 등은 전생의 업보 탓이라고 하는데 현대의학 및 유전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난치병도 완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보라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③ 우주생성의 기원 및 생명체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엄광일 · 경북 청송군 진보면〉

답 ① 모든 존재는 각자 마음의 차원 그대로 그 수준에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마음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지옥고에 떨어질 것이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승천을 하게 되지요. 그런 걸 우리는 육도에 윤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도가 어디 따로 따로 구획을 정하듯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어느 경우엔 축생계로 가고 어느 경우엔 천상계로 간다는 식, 말하자면 그렇게 교통정리하듯이 가는게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몸뚱이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차원에서는,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이나 둘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육신으로 말하면 있고 없고가 있지만 마음의 차원에서는 설사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죽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죽는 것을 옷 벗는 것에 비유하지요? 육신은 그야말로 옷을 벗어버리듯, 장갑을 벗어버리듯 벗을 수 있지만 마음은 장갑을 벗어도 내 손이 그대로 있듯이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은 생전의 차원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독사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죽어서도 그 마음은 생전의 독사같은 마음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죽어서 독사굴에 들어간 셈이지요. 돼지같이 탐욕스러웠으면 또 돼지같은 마음 상태로 남을 것이구요.

그게 바로 육도윤회입니다. 생전에 보살심으로 살았으면 죽어서도 그 마음은 천상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극락이 따로 있고 축생계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차원에서 극락 축생 아귀가 있는 것이지요. 또 죽어서만 극락 축생이 아니라 산 채로 그대로 극락이요 축생입니다. 가령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그대로 극락일 것이고 삼독심에 젖어 산다면 지금의 삶이 그대로 지옥고일 것입니다. 그러니 성철스님께서 그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깊은 뜻을 바로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서방극락세계라는 경계에 매일까 걱정하시고 그것 또한 방하착하라 하신 것이지요.

② 마음은 비유하건대 거대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일으킨 한 생각이라도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거기서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나는 수억겁을 살아오는 동안 뭉치고 뭉친 업의 덩어리라고 하고…. 또는 업식이라는 노비문서가 하늘 끝까지 닿을만큼 쌓여져 있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은 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 빠짐없이 기록되어서 우리는 그로부터 한발짝도 도망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서도 말했듯이 죽어도 멸하지 못합니다.

그랬다가 조건이 맞으면 현실의 경계로 솔솔 풀려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곧 고의 생산공장이 되는 셈입니다. 질병을 포함한 모든 고통, 고통만이 아니라 즐거움까지도 다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의 결과로 내게 다가오는데 불치병이니 암이니 하는 것도 다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대로 의학이 발달되어서 난치병도 완치되니 업보란 없는게 아니냐 하시는데 뿌린 것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져서 예전엔 꼼짝없이 죽을 병이었다가도 요즘와선 치료가 가능해진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업보가 없느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물처럼 얼키고 설킨 인과의 법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가령 내가 남을 때렸을 경우 죄값만큼 형을 살기도 하지만 보상을 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듯이 그 경우가 달라져 대해서 업보가 어쩌느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마음으로 지은 것이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마음의 도리를 알아 나온 곳에 되돌음으로써 업을 녹이는 도리는 있습니다.

③ 우주의 생성이나 생명체의 탄생이 다 한마음, 영원한 생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단순히 물질의 차원만 말하는데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믿지 않고 물질세계로만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주 첨단의 과학자라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법에서는, 아니 불법이 그대로 진리입니다만 한 마음 또는 한 생명—그것도 이름입니다만—이 사대로 벌어지고 사대의 다 독특한 맛에 따라 유전자가 탄생하고 온 우주로 확산되어 거기서 수많은 생명체 수많은 별들이 나투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공부이지 우주탄생의 기원따위가 아닙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97학년도 조계사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개강 : 3월 10일 (입학식:3월8일)

(1)모집부문

학 과	학제	모집인원	비 고
불교학과	2년 4학기	주간·야간 각60명 통신○○명	과목별 수강도 가능

(2)입학자격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기초교리, 교양대학 수료자(고졸이하 학력소지자의 경우)

(3)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본 대학 소정양식)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기초교리 수료증 사본 1통(고졸이하의 경우)

(4)특전
조계종총무원 발행 포교사 자격증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졸업장 수여,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5)학과목 및 강사

학 년	1학년		2학년	
구 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과 목	종교입문	불전개설	대승불교	포교론
	불교문화	한국불교사	중국불교사	선사상
	원시불교	불교윤리	금강경	불교사회사상
특 강	학기중 2회			
강 사	현근스님, 상묵스님, 현각스님, 종석스님, 종호스님 권기종, 조용길, 정명호, 선진규, 정병삼, 박경준, 김상영, 김용표, 최종석, 김경집, 김진태, 김태영교수 (무순)			

※강사와 교과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강의일시 : 매주 월, 화, 수요일
주간/오후 2시~3시30분 야간/오후 7시~8시30분
조계사내 제1, 2강의실

(7)원서 접수 기간 : 1997년 1월 15일 ~2월28일

불기2541년 조계사 불교대학 부설

제4기 경전연구강원 연수생 모집

(1)모집부분
경전연구 본과정 : 4학기(2년과정)
경전연구 단기과정 : 1년과정

(2)입학자격
불교대학(교양대학 포함)재학 및 수료자/기초교리 수료자

(3)전형 및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본 강원 소정양식)/사진2장(반명함판)/수계증 사본 또는 불교대학(교양대학)재학증명서나 졸업장(수료증) 사본 1통

(4)강의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3시

(5)등록
본과정 입학금:100,000원 수강료:100,000(1학기당)
통신과정 입학금:100,000 수강료:130,000(1학기당)
단기과정 수강료:130,000원(통신 160,000)

(6)제4기 경전 연구반
● 연구경전 : 유마경(1년)
● 강사 : 송찬우교수(중앙승가대교수)
● 개강일시 3월15일(토)오후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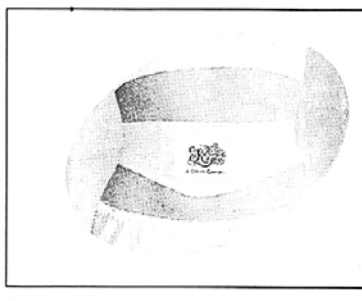
조계사 문화강좌 안내 (매월초 개강)

불화그리기, 서예, 사군자(동양화), 판소리(남도민요), 수지침, 다도, 가요부르기, 꽃꽂이, 선체조, 한국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계사불교대학 교무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720-1390,6742 F.720-1391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㉜·끝

第三 關于觀無念已得寂靜輕安
제삼 관우관무념이득적정경안
而還到任何境界的人
이우도임하경계적인
爾只照顧本參話頭
이지조고본참화두
一念不生
일념불생
佛來佛斬 魔來魔斬
불래불참 마래마참
一概不理他
일개불리타
自然無事 不落群邪
자연무사 불락군사

셋째, 무념을 관하여 이미 적정·경안에 들어 어떤 경계에 도달한 이에 관한 것이니

이들은 다만 본래 참구하던 화두를 되돌려 비추되 한생각 내지 말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베고 마군이오면 마군을 베어 한결같이 저를 따지지 않으면

자연히 일이 없고 삿된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第四 關于妄念已歇
제사 관우망념이헐

높고높은 산봉우리에 우뚝서고

깊디 깊은 바다밑을 거닐면서 다시 손을 놓아 종횡으로 행동하리라.

以上所說 都是對末法時期的鈍根人說
이상소설 도시대말법시기적둔근인설
的方法
적방법
其實宗門上上一乘
기실종문상상일승
本師釋迦牟尼佛
본사석가모니불
在靈山會上
재영산회상
拈花之旨 教外別傳
염화지지 교외별전
歷代祖師 惟傳一心
역대조사 유전일심
見性成佛
견성성불
不落階級 不假修證
불락계급 불가수증

이상 설한 바는 모두 다 말법시대의 노둔한 근기인에 대치한 방법이나

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상상일승이다.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 계실때 꽃 한송이를 드신 뜻으로 교문밖에 따로 전하시고

'하나' 향해 사무치면 깊은바다 밑도 종횡
이자리서 망념 일지 않아야 여여한 부처

淸淸爽爽身心自在
청청상상신심자재
的人
적인
應如古人所說
응여고인소설
萬法歸一 一歸何處
만법귀일 일귀하처
由一向至極處邁進
유일향지극처매진
直之高高山頂立
직지고고산정립
深深海底行 再撒手縱橫去
심심해저행 재살수종횡거

넷째, 망념이 이미 쉬고 맑고 상쾌하여 신심이 자재한 이에 관한것이니

옛사람들이 설한 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처럼

하나를 향해 지극하게 사무치면 바로

역대조사님들이 오로지 한마음 전하여 견성 성불케 하심이

계급에 떨어지지 않고 수행 증득함을 빌리지 않은 것이다.

一言半句即了無一法可得
일언반구즉료무일법가득
無一法可修
무일법가수
當下就是不起妄緣 卽如如佛
당하취시불기망연 즉여여불
那裏有許多閒話呢
나리유허다한화니

그러므로 일언반구라도 한 법조차 얻을게 없고 한 법이라도 닦을게 없노라.

이 자리에서 망념된 반연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여여한 부처자리이니

이 가운데 무슨 쓸데없는 말이 많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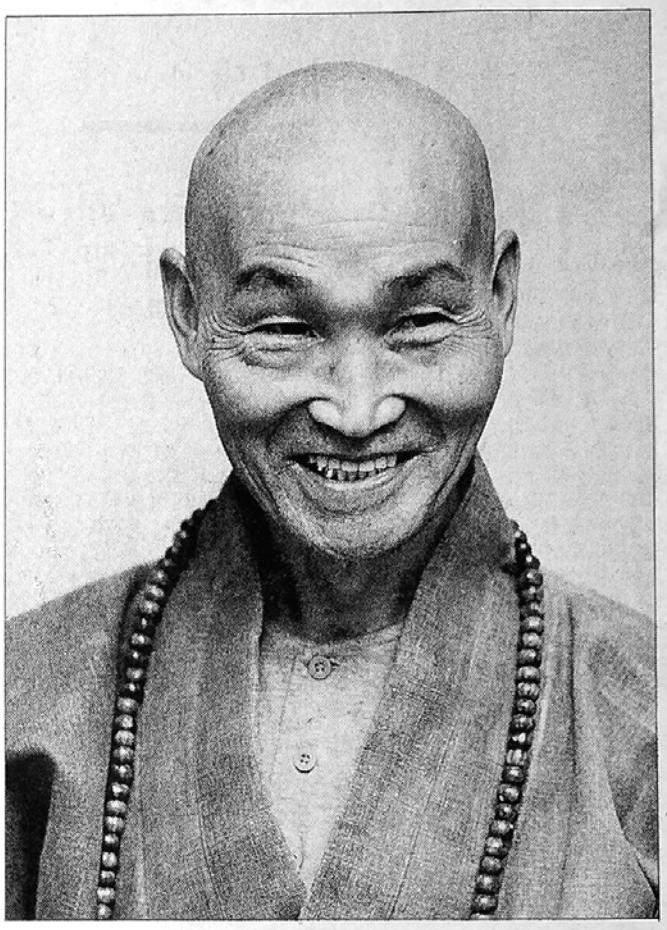
龍眼

인기연재물 '虛雲和尙의 참선요지'는 이번 호로 끝나고 다음 호부터는 '법구경'을 연재합니다. 대장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구경은 423편의 시집으로 주제에 따라 26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는 이 경은 혼탁한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들 삶의 더 없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한역본을 우리말로 옮겨 매주 독자여러분을 찾아 가겠습니다. 성원바랍니다.

큰스님 수행한담

"삼매로 습기 녹여야

청화스님 〈성륜사 조실〉



'나'라는 관념때문에 相이 생기고
삶이 무거워 지니 매일 업장 녹이다보면
치우침 없이 다 포함된 자리 이룹니다

내가 3년결사를 발원하고 미국에 건너와 이렇게 1년여 살고있자니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미국에 오게됐냐는 겁니다. 달마스님께서는 공부가 다 성취된 뒤에 동토지방을 제도할 원력으로 동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이도 많고 미숙한 채로 미국불교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불교가 아직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서고, 미국의 각국 불교들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서로 화합도 안되어 있는 것도 같아서 융합적인 차원에서 누군가가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또한 미국은 선진국으로 세계의 석학들이 많이 모이고 문화교류가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불교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리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곳 미국도 그렇고 어느 사회나 개인에게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갈등과 분열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들은 모두가 실체가 아닙니다. 자기 몸뚱이나 관념 심지어 대상물 모두가 실제가 아닙니다.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온개공(五蘊皆空)'입니다. 오온에는 인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오온은 본래로 실존이 아니요 가상인 것이고 허망상인 것이기 때문에 공(空)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생이 인식하는 모두가 허망한 것이요, 잘못 보는 것으로서 실저가 아닙니다. 진리는 반야바라밀인 중도실상(中道實相)입니다. 그래서 중도실상의 생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대화도 하고 행동해야 분열 갈등이 없어집니다. 또 모든 일을 진리의 조명아래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실상은 어디에도 안 치우치고 모두가 다 포함된 자리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듯이 허망 무상한 상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텅 비어서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모두를 다 초월한 자리이며, 모든 성자들이 체험하는 참다운 생명자리입니다. 일체 가상을 떠나서 인생과 우주의 본래 생명의 실상자리가 바로 중도실상 자리입니다.

중도실상 자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도저히 자기 분상에서 납득이 안되니까 아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수희찬탄(隨喜讚嘆)하는 마음으로 바로 수용하는 마음이 되면 납득하게 됩니다. '부처님이나 도인들은 가장 정직하고 총명하고 바로 깨달은 분인데 그 분들이 옳다고 했으니 그대로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전폭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염불이나 주력이나 화두나 자신의 근기에 맞추어 다른 생각을 않고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십

약력
- 1923년 生
- 1946년 금타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
- 40여년을 토굴수행 장좌불와 정진
- 곡성 태안사 조실 역임
- 95년부터 美 팜스프링 금강선원 주석

재가불자도 한달에 여섯날은
출가한 셈치고 오계 수행하세요
몸도 정신도 맑아 환희심 얻습니다

시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하루 하루 한만큼 업장이 녹아짐에 따라서 중도실상의 경계가 점차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동 서양 철학서적을 이것저것 섭렵했습니다. 동양철학을 넘보면서 물론 불교서적을 만났지요. 경전도 보고 불교입문서도 보면서 나름대로 불교의 윤곽이랄까요, 겉을 잡았었습니다. 그 후 우리 집안의 6촌 동생이 절에 있으면서 공부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그 즉시 "아, 그러느냐?"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절에 가서 공부도 하고 수양도 좀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워낙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미련없이 그대로 출가했습니다. 바로 은사이신 금타스님이셨습니다. 그 어른은 실로 모든 점에서 자기 개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으셔서 진정 진리의 불덩이 같이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의 법문에서 제가 기독교나 현대과학에 있어서 막혔던 문제가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다 풀리니까요. 오랜동안의 회의가 풀리니까 젊은 사람으로서는 환희용약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수행이 철저하셔서 '스님의 방법을 취하면 꼭 성불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서게되니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40년여년을 은사스님처럼 수행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종식하고 장좌불와(長座不臥)의 방식이었지요. 젊어서는 고집을 부리고 장좌불와한다고 했고 근 30년을 토굴생활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철저한 셈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원칙을 그렇게 세우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니만 먹으면 그렇게 편해요. 그리고 토굴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여러 끼니 해 먹기도 귀찮스럽고 하루 한 끼니만 먹으면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몸이 가볍다는 것은 그만치 피순환이 잘된다는 것이고 또 피순환이 왕성하니까 병균이 못 침범하겠지요. 사실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끼니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승가생활에서 아침에 배고플 때는 죽을 먹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일종식이지요. 저도 역시 원칙은 지켰으나 어디에 초청되면 애써 대접하는데 안 먹으면 미안스러우니까 더러 먹기도 했습니다.

또 젊어서는 어거지로 상을 내서 잠도 안자고 앉아서 버텼지요. 그러나 지금은 몸뚱이도 쇠약해지고, 이제는 앉으나 서나 공부에 망상도 별로 나올 때가 아니고 해서 될수록 안 눕는 쪽으로 원칙은 세워놓고 고집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피로

한 국 역 학 대 학
97년 신입생모집

1. 목적 : 국내 최초 공신력 있는 역학 교육기관으로써 심오한 동양철학(역학)을 누구나 쉽고 바르게 교육시키며 올바른 역학인(카운셀러)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간 및 과목
교육기간 : 6개월
교육과목

오행역학	명리학	성명학	상담학

3.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접수기간	전형방법	입학금 및 수강료
정규반:50명 통신반:50명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5매	97년2월17일 ~ 3월 29일	남·녀 누구나 선착순 접수	입학금 30만원 수강료 월10만원 (교재 및 강의 테이프 포함)

4. 특전
- 본대학 졸업장 및 역리사 자격증 부여
- 자유직업을 원하시는 분 공인 역리사 활동 취업보장
- 졸업후 희망자에 한하여 일본 역도대학 유학알선
- 지속적 교류 및 역학정보 제공

한국역학대학
서울 송파구 송파1동 15-3 해광 B/D4층
대표전화
(02)423-6446

인간과 미래를 생각하는 열린교육의 장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1997학년도 봄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1. 모집과정

구 분	분 야	과 정		교육기간	주·야구분
교양교육 과정	불 교	불교란 무엇인가		1학기	주·야간
		좌선법의 이해와 실제		1학기	주·야간
	문 화	문예창작		1학기	주 간
		영화다시보기		1학기	주 간
		교실속의 세계여행		1학기	주 간
	경 제	재(財)테크 교실		1학기	주·야간
	건 강	한방건강교실		1학기	주 간
		선기공(禪氣功)		1학기	주 간
	정보·매스컴	광고·카피라이팅		1학기	야 간
		컴퓨터교실	Internet/Win95	1학기	야 간
			PowerPoint/한글3.0b	1학기	
			Excel/MS word	1학기	
전문교육 과 정	불 교	불교전문교육		2학기	주 간
		경전강독 (유마경)		1학기	주·야간
		불교영어		1학기	야 간
		불교고전어(산스크리트어)		1학기	야 간
특별교육 과 정	박 물 관	불교박물관 교육과정		2학기	주 간
	불 교	「동국TV불교아카데미」		2학기	BTN T.V강좌
단기과정	자 격 증	경비지도사 준비과정		4개월	주 간
	창업·부동산	소자본 점포경영(97.6월중 모집)		2개월	주·야간
		새로운 사업아이디어(97.6월중 모집)		2개월	주·야간
		부동산 투자관리교실(97.6월중 모집)		2개월	주·야간

2. 지원자격
제한없음 (단, 불교영어는 고졸이상)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년 2월 17일(월)~2월 26일(수)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학술관 1층)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와 (3×4cm)사진3매
나) 주민등록등본(「동국TV불교아카데미」과정 지원자에 한함)

5. 문 의 처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 260-3727~29 / FAX : 260-3730

신토불이 방생

우리 강산과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 물고기를 방생합시다

- 배달도 해드립니다 -

자라, 잉어, 가물치, 미꾸라지

연 락 처
전 화 : 272-3596~7
Fax : 363-3597
자 택 : 363-7067
휴대폰 : 017-234-359-7
(동대문 광장시장 47호)
은 하 상 회

큰 스님 수행한담

무량공덕 나옵니다"

"나도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
선근 깊지 못하면 자꾸 후퇴합니다
성자와 나의 근본성품 같으니
'얼마만큼 닦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론없는 실천은 맹종… '안심법문' 따르세요"
번뇌의 뿌리 뽑히면 중도실상 생명 체험

하면 놉기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장좌불와는 아니지요.

이런 수행이 나에게는 다분히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에 힘을 얻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조금도 몸에 부담이 없고 마음이 절로 고요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있는 만큼 더 맑아지니 말입니다. 혼침도 미처 참지 못하고 망상만 피우고 그럴 때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니까 지장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철두철미하게 다 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나같이 토굴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수행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기본적인 출가 수행자의 청규가 오후에는 먹지말아야 하고, 병자가 아닌 한에는 한 번 일어나면 취침시간까지 앉아서 공부할 것이지 자리에 눕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재가불자들도 적어도 한 달에 여섯 날은 오후불식하라고 권합니다. '6재일'이라 해서 한 달 가운데 스스로 정해서 여섯 날은 출가한 셈 치고 생활규범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날만은 내외간에도 잠자리이 들지 않고 고기도 안 먹고 허튼 말도 않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오로지 부처님 공부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한끼만 먹게 되면 사람들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몸 분위기가 대단히 좋아집니다.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적게 먹으면 먹는 양에 비해서 체내 흡수가 많아지게 되고 피도 맑아집니다. 많이 먹으면 배설을 많이 하니까 흡수하는 비율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은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광명을 몸으로 하였으니 광명은 불생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지요. 부처님 말씀에 보면 최초의 인간은 식식(識食)이라, 마음으로 음식을 삼았다는 뜻입니다. 환희심나는 행복(法喜禪悅)을 음식으로 하고, 법(法)을 음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법에 대해서 환희심으로 충만하다면 그때는 안 먹어도 마음이 충만하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막히고 남 미워할 때는 필요없이 자꾸 먹게되지 않습니까.

은사이신 금타스님은 번뇌를 녹여서 성자가 될 때 중도실상의 생명을 체험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른의 가르침을 잡고 선방에도 몇철 다녔습니다만, 워낙 위대한 분을 스승으로 모신 터라 달리 스승을 찾을 생각을 내지 않고 토굴생활을 했습니다. 40대에는 모범적인 선방을 만들어 사람을 길러 보려고 토굴에서 나와봤지만 그것이 잘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내 역량 부족도 있고 인연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였겠지요. 그래서 다시 토굴로 들어가고 또 나와보고 그러다가 60살 넘어서 온전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생명자체를 중도실상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금타스님께서 쓰신 〈금강심론(金剛心論)〉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중생의 육안은 번뇌에 때묻은 오염된 육안이기 때문에 금진의 세계를 알려고 할 때는 중생의 욕계번뇌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천안통이 나온다"

욕계번뇌의 뿌리를 뽑으면 천안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나도 번뇌의 뿌리가 뽑히려면 천리만리입니다. 평생동안 노력해야지요. 번뇌의 뿌리가 뽑히면 발이 하늘로 뜬다는 말씀이 경론에 있습니다. 전혀 무게를 못느낀다고 합니다. 실로 무게가 있지 않은 것인데 '나'라는 관념, 번뇌 때문에 상(相)을 내고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관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는 먼저 길목을 알아야 합니다. 실천에 앞서서 이론이 있어야지 이론없이 실천만 있으면 맹종이 되는 것이고 빗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론이 앞서야 하는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밝혀 놓으시고 무수한 성자가 탄탄대로를 닦아놓으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길목도 연구하지 않고서 동서를 헤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되어 있는길 환한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안심법문(安心法門)입니다. 억지로 이것인가 저것인가 상대적인 의심을 해서는 마음만 피곤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꿈같다고 했으면 분명히 꿈같다고 보려고 하고 그림자를 그림자로 여겨서 집착을 뿌리치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뿐하고 공부가 잘풀리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 이대로 있다고 인정하고 공부하는 것과 이 몸뚱이가 본래 비었다고 여기며 공부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정통선을 익혀야만 참다운 선정의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도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정통선으로 해서 사선정(四禪定) 사공정(四空定) 멸진정(滅盡定)까지 못나간다면 우리 자성이 갖추고 있는 무량 공덕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자성 가운데는 삼명육통(三明六通)등 무량 공덕이 갖춰져 있는데, 삼매로써 습기를 녹여야 무량공덕이 나옵니다. 불교가 다시 옛날 도인들처럼 화광삼매(火光三昧)에 들어서 자기 스스로 불을 내어 자기 몸을 태우는 정도의 도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현대 물질사회에 젖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고, 제도하기도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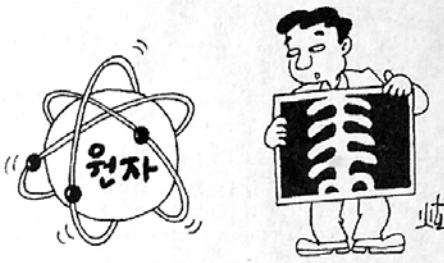
부처님 육성과도 같은 〈아함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불교란 결국 기도를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우리 마음이 일념이 되고 업장이 녹아서 삼매에 들어야 합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바른 깨달음, 바른 계시를 받으려면 꼭 그래야만 합니다.



◇ 1965년 광주시 서석동 92번지 추강사에서 수계식을 갖고 수계제자들과 함께한 기념 사진(뒷줄 중앙). 추강사 자리에는 현재 조선대 의대가 들어서 있다.

어느 누구나 성자가 되려면 깊은 삼매에 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 성자가 되려고 하니까 무리가 생기고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도 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한계를 의식하며 자신없어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누구나가 삼명육통을 다 할 수 있고, 위대한 공덕이 있는 성자와 내가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불법입니다. 달마조사와 내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겉에 형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근본 성품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지요. 다만 우리가 닦고 안 닦고, 또는 얼마만큼 닦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선근이 깊지 못하면 자꾸만 후퇴합니다. 닦다가도 조금만 피로하면 '편히 살 것인데 괜시리 사서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른 스님들은 편하게 승려생활을 잘하는데 무슨 필요로 그렇게 까다롭고 옹색하게 하느냐고 해요. 삼매정진을 무시한다면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제자들 가운데서는 내가 잘 돌봐주고 인자하다고 하면서도 너무 계행이 철저해서 시봉하고 싶어도 스스로 포기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무애행(無碍行)'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걸림없네 하면서 짓는 과계는 무애행이 아닙니다. 수행의 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무애행은 법기에 끄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행을 지키고도 걸림이 없는것, 그것이 무애행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104

박 순 달

4大와 原子 ⑥

현대물질관

원자→소립자→쿼크로 기본단위 변화
물체의 운동 인과보다 확률로 설명

달톤은 1908년 저서 〈화학철학의 새로운 체계〉에서 물질의 기본단위는 원자라고 정의하고 이 원자의 질량인 원자량 개념을 도입하여 원자설을 확립한다. 이 원자설에 의하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들이 모여 분자를 만든다. 분자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물질의 최소단위이다. 산소, 수소는 원자이나 물은 산소와 수소로 구성된 분자이다. 18세기에는 공기속에서 여러 가지 원자가 발견되었을 뿐만아니라 철, 구리, 니켈, 코발트, 금, 아연, 백금, 수은 등이 발견되어 자연계에는 30종의 원자가 존재했다. 19세기까지는 대략 90여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립된 원자설도 몇십년을 견디지 못했다.

베크렐은 1896년 인화지를 검은 종이로 싸고 금속무늬판을 놓고 그위에 우라늄을 놓아본 결과 인화지에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방사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부인 큐리는 새로운 물질인 폴로늄과 라디움을 발견한다. 라디움은 현재 의료용등 다방면에 쓰이고 있는 방사능 물질이다. 이 방사선의 발견으로 원자가 단순히 더 분해할 수 없는 물체가 아니라 이 원자 역시 다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예로써 방사선 물질에서 나오는 알파선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속도를 잃고 정지하면 헬륨이 된다. 이 사실로 그 방사능 물질의 원자 내부에는 헬륨의 원자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러더포드는 1911년 원자모형을 제시하는데 이 모형에 의하면 원자 속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돌고 있다. 크기로 보면 보통 원자의 크기는 1㎝의 1억분의 1정도이다. 그런데 원자핵은 1㎝의 수천억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수성, 화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것의 축소모형과 같은 것이다. 원자는 매우 작고 고체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텅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원자의 대부분 질량은 원자핵에 모여 있다.

그러나 전자들의 운동이 천체운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해, 달, 지구 등 천체의 움직임은 만유인력과 뉴톤 운동법칙으로 정확하게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전자는 한 순간에는 여기 있고 다른 순간에는 저기있어 불확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 20세기 초 원자속에서의 이같은 예측불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닐스보아는 원자세계의 불확정성은 자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반해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로 반박하였으나 아직도 닐스보아의 견해가 우세하다. 이것은 방사선 물질의 붕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물체의 운동은 확실한 인과로 설명할 수 없고 단지 확률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로 다시 정립된다.

러더포드는 1919년 라디움을 질소에 쪼여 산소로 변환시켰다. 현대판 연금술을 실현한 것이다. 1932년 원자핵을 인공적으로 파괴하는데 성공한 마이트너, 오토한, 스트라스만은 1938년 우라늄을 중성자로 때려 바리움과 크립톤으로 분열시키는데 성공해 원자탄을 만드는 기초를 마련했다. 그래서 1932년 하이젠벨그는 원자핵이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새 이론을 제시했다. 이것은 원자핵도 다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소립자라고 부른다. 소립자가 발견되는 과정에서 1955년에는 중성자의 반입자를 발견하고 그뒤 전자 중에서 반전자 등을 발견하게 된다. 이 반입자는 중요한 뜻을 가지는데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빛이 된다. 모든 입자에는 반입자가 있다. 입자라는 것은 물질인데 물질과 반물질(반물질은 역시 물질이다)이 만나면 그 물질이 빛이 되어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물질의 기본단위가 원자라는 원자설이 성립된지 30년만에 이제 물질의 기본은 소립자라는 소립자설로 바뀐 것이다. 더나아가 겔만은 소립자보다 더욱 기본적인 물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쿼크(Quark)라고 명명했다. 지금까지 많은 종류의 쿼크를 발견했고 이제 물질의 최종 구성 단위는 전자와 같은 경립자, 쿼크, 전달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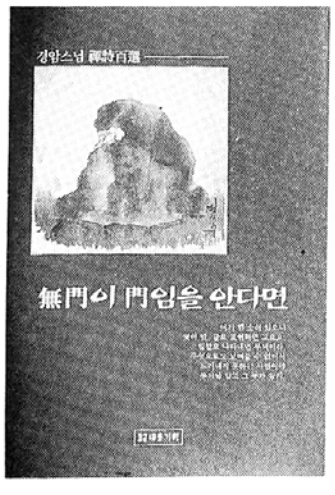
〈서울대교수 · 산업공학과〉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 경암 김준현스님 禪詩百選

時調詩로 엮은 깨달음의 詩 !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깨칠 것인가를
잔잔한 물결처럼 나직히 일러주는 스님의 목소리…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8만 4천 법문이
꽃 한 송이에 갇힘을 보고

눈 푸른 납자(衲子)는 꿈 깨어
희열로 이말 쳤단다.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네 이마도 안 남으리

경암스님의 시는 간단하면서도
한구절 한구절이 깊이 음미하면
불교인식의 구경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짧은 인생을 길게사는
법을 관념적으로나마 알게된다.
— 장이두스님 발문 중에서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 종로구 수송동 46-18
TEL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정가 10,000원〉

바른불교 · 쉬운불교 · 생활불교를 펼치는

정토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4학기 2년 과정인 본 대학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직접적인 수행실수 그리고 불교의 사회적 실천활동을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보다 풍요롭고 지혜로운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 간	요 일	시 간	차/기	교 과 과 정	
홍제대학	3월14일-7월18일	매주 금	주간.야간	4차 3기	■ 제4차 제1기	■ 제4차 제2기
서초대학	3월13일-7월17일	매주 목	주간.야간	4차 1기	● 실천적 불교사상 ● 진실한 신앙생활 ● 사원의 구조와 불교의 에절 ● 특강 : 불교와 사회(1)	● 인간불다, 그 위대한 삶 ● 불교사상의 뿌리, 근본불교 ● 수행의 본질과 힘, 오대수행 ● 특강 : 불교와 사회(2)
성남대학	3월12일-7월16일	매주 수	주간.야간	4차 1기		
대전대학	3월14일-7월18일	매주 금	주간	4차 3기		
대구대학	3월12일-7월16일	매주 수	주간.야간	4차 3기	■ 제4차 제3기	■ 제4차 제4기
부산대학	3월11일-7월15일	매주 목	주간.야간	4차 1기	● 불교교학의 두가지 체계 ● 부처님나라, 인도의 불교사 ● 세계관 전환을 위한 증교론 ● 특강 : 불교와 사회(3)	● 불교의 세계적 변천사 ● 진리의 바다, 경전의 세계 ● 마음을 찾는 길잡이, 심우도 ● 특강 : 불교와 사회(4)
경주대학	3월11일-7월15일	매주 화	주간.야간	4차 1기		

● 주간 : 오전11시 - 오후1시 / ● 야간 : 오후7시30분 - 9시30분
● 본 과정은 중간 학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원서교부 및 문의 · 접수처 ●●●●●
● 서울 홍제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2-379-1650-2
● 서울 서초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2-522-2841, 582-1080
● 성남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342-721-7062, 722-1760
● 대전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42-534-9166
● 대구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53-761-5970
● 부산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51-557-2746. 553-9934
● 경주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561-772-1950

모집 대상 및 입학금 ●●●●
● 대상 : 누구나 다(만 19세 이상)
● 참가비 : 6만원
● 접수.문의 : 각 지역 대학 사무국

정.토.불.교.대.학
맑은 마음 / 좋은 벗 / 깨끗한 땅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0-60 인왕빌딩 2층
전화 : 02-379-1650-2

고은 불교대하소설



114



효영과 명오 떠나다

수군도 굳이 무반(武班)으로서의 양반에 속하는 것이지만 육군의 간부급과는 달리 필도사나 그 밑의 장교 그리고 조선의 사령을 제외하면 상인(常人)들이었다.

심지어는 근본을 모르는 천인(賤人)이 배를 움직이는 실정이었다.

무욕도에 올라선 사후선은 본디 포도청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수적이나 역적이 발흥하는 때인지라 수군 쪽에서 징발한 상태여서 그 수군들은 포교나 포졸과 같은 교활함은 보이지 않았으나 거의가 목자 사납고 험한 인상들이었다.

필보장수는 계속 거들먹댔다. 하지만 인담은 그런 사람의 위세에 겁으로 태연한 것만으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한 투미디 덧붙였다.

"… 소인들은 다만 공부하여 국토와 인심을 청정하게 하는 일로 뜻을 삼아 수신(修身)에만 열중하고 있었는지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인가?"

"비방히 이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이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인들의 공부를 당분간 그만두더라도 나리들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호음…."

필보장수 뒤에 서있던 사후선 사령이 선장실로 들어갔다.

필보장수가 그만 다그쳐도 되겠다는 상사의 뜻을 알아차려 말투를 한층 부드럽게 하였다.

"보다시피 이 사후선은 서해 일대에서 어떤 괴변이라도 일거에 진압하도록 단단히 무장하고 있지. 앞으로 그대들도 우리의 일에 호응하여 이 일대의 배들이나 섬에 오고가는 자들의 동태를 잘 살펴주도록 하기 바라네. 그리고 우리 수군이 이 섬에 주둔하는 일이 오래 계속될지도 모르니 군량(軍糧)도 대는 일을 잘 생각해 보도록…."

인담은 대해와 함께 때때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 뒤에서 수군 여럿이 거룻배를 저어 본선에서 무욕도로 향하고 있었다. 거의 함께 섬의 선착장에 내렸다.

수군 병졸들이 도량 위쪽에 군막을 치고 있었다. 목자 사나운 병졸들이었다.

그때 우녀가 인담 대해를 맞이하려는듯이 나타났는데 한 녀석으로부터 걸죽한 험담을 들었다.

"아아니… 아직도 몸매나 더운 계집이 이런 섬에 처박혀 무슨 수도를 한답시고 눈을 지긋이 감았다 떴다 하고 내숭이여…."

"……."

"하기야… 여기라도 방망이 닳린 짐승이 몇놈 있으니 번갈아가며 감창소리로 밤을 새울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런 계집보다 더 뽕뽕한 것이 둘이나 있으니… 이제부터 그것들은 우리가 차지할까…."

"……."

우녀는 가슴팍이 떡 벌어진 수군 병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떠 맞섰다. 국 다문 입술은 종처럼 열릴 것 같지 않았다.

"이게 사람이여 귀신이여… 겁도 없이 째려보고 있다니."

그런 말로 한번 더 벌러보지만 우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의 뒤에 인담과 대해들이 슬금슬금 다가왔다. 대해로서야 그런 병졸 하나쯤은 눈깜짝할 사이에 들어올려 저만치 바위에 부려놓을 힘이 있지만 상대방은 지금 이 바다 위에서는 아무도 건들일 수 없는 수군 나부랑이가 아닌가.

파도더미 하나가 유난스럽게 그들이 서있는 곳까지 달려들어 솟아올랐다가 떨어져다보았다.

그들은 군막만을 쳐놓은채 일단 거룻배를 풀어 파도 위에 띄웠다. 하지만 파도는 아직 순해지지 않아서 거칠었고 거룻배는 끝내 본선 가까이 가서 훔딱 뒤집히고 말았다.

거기에 타고 있는 간부와 병졸 넷이 몽땅 파도속에 파묻혔다가 가까스로 뒤집힌 배에 몸을 의지하며 헤엄치고 있었다.

과연 본선의 사령은 우녀의 말 그대로 갑자기 가슴이 아픈 협심증세로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가까스로 그 본선에 오른 병졸들은 그들의 상사가 섬의 여인이 말한 그대로 누워있는 사실에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어이 그 사령은 숨지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사후선은 무욕도에 군막을 치고 임시로 주둔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바로 강화도 수군 진영으로 돌아가야 하였다.

수군들이 수군거렸다. 함부로 섬의 도인들을 건드려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섬의 귀신이 진노한 까닭으로 우두머리가 어이없이 죽게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까지 아무런 겁없이 이 섬 저 섬을 마구 분탕질하던 그들인지라 저마다 몸이 오싹하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어야 하였다.

"술 남은 것 없나?"라고 무욕도에 건너갔다 온 간부가 그런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술이라도 마시고 싶었다.

수군들이 수군거렸다
함부로 섬의 도인들을 건드려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저 배에만 송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녀가 슬픈듯 내뱉었다

선장실은 그대로 사령의 시신을 둔 채였고 선장실 밖에서 배의 항로를 조정하게 되었다.

이 사후선이 멀리 북쪽 바다 수평선의 돌날파도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무욕도에서는 우녀와 인담들이 그 배를 무의식 가운데서 물이 물꼬를 만들어 흐르듯이 그녀 자신도 어쩔 수 없게 나온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상태의 예지를 무의식으로도 잘 다스려야 하였다.

인담은 그의 도반으로서의 우녀를 지극히 받드는 마음을 갖추고 있다. 어떤 때는 도반이라기보다 그녀가 스승이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런 도반에게 긴요한 것이 광상(狂狀) 그것이었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는 그런 광상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그저 운판(雲板)을 치면 밥 먹으라는 소리인가보다 하고 큰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그것 말이다.

물론 무욕도의 저녁은 밥이 없다. 오후불식(午後不食)을 지킨지 오래이다. 그러므로 운판 따위 소리를 낼 까닭이 있다면 다른 일 때문이겠다.

사후선의 일로 하루가 뒤숭숭 하였다. 날마다 이어가는 일과도 어긋나버렸다.

인담은 우녀에게 '섬 안의 두 송장'에 대해서 더 물어보지 않고 그의 선방으로 갔다.

선방, 죽비 하나와 장군죽비 하나가 그 방의 주인공인가. 벽에 옷이 걸린 것이 한쪽을 채워 그것으로 이 방이 사람이 사는 방임을 말하고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방 중앙에 있는 턱높이의 불단에는 불상이 없다. 그저 작은 빈 방석만이 놓여있다. 굳이 말하기로 한다면 법신을 모셨으므로 불상이 필요없다 할 것인가.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마음은 있으나 사람의 얼굴이 없는 느낌이었다.

밤에는 으레 그렇듯이 아무도 말리거나 물리칠 수 없는 파도소리가 한층 커진다. 처음에 이 섬에 와서 자는 사람은 도무지 아무도 달랠수 없는 파도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지친 몸이거나 여러 곳을 거치는 동안의 수고가 많은 몸이지만 이 섬의 동서남북을 가득채워 솟아오르는 것 같은 파도소리에는 장차 그것에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단련을 받아야 하였다.

그런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언제 사후선 수군 병졸 따위가 들이닥쳤던가. 그들의 군막이 쳐져서 저 위쪽에서 펄럭대고 있는 것까지도 그저 파도소리의 커다란 무덤 안에 들어있음이었다.

온갖 귀신 우짖는 소리까지도 들어있을 이었다.

인담은 얕은 잠을 자고 있는데 대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며 방바닥에 굴렀다. 인담이 일어나 부싯돌을 쳤다.

대해가 피투성이였다.

"이 무슨 일인가!"

대해는 그 자신의 일보다 바깥쪽으로 자꾸 손짓을 하였다. 문을 탁 차고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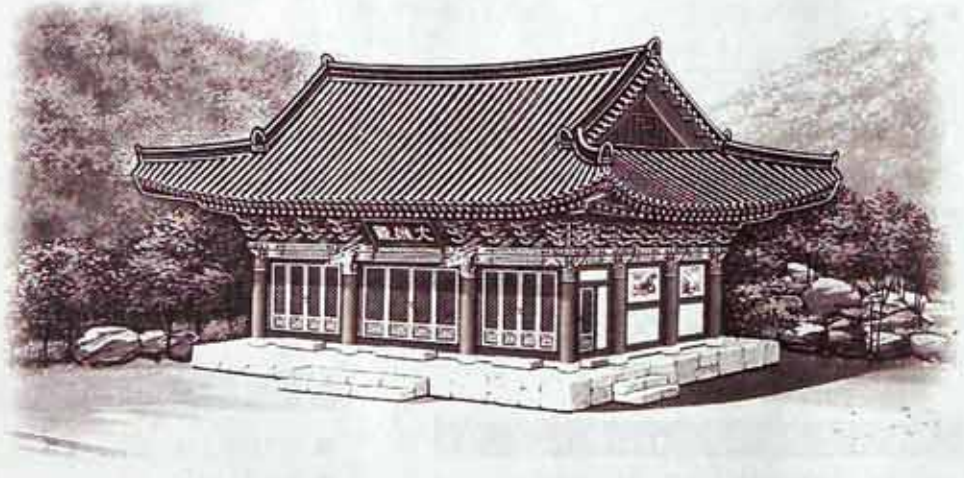
아래쪽 벌채 밑의 낮은 쪽으로 하얀 달빛과 별빛에 익숙해지자 무엇인가가 보였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효영과 명오였다. 그들이 어인 일로 죽어있는 것이었다.

그림 · 조향숙

장엄불사 조감도

스님의 생각을 현실로 표현해 드립니다.

(주)두풍산업에서는 확실한 조감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엄불사안내 : ●목조 사찰건축, 콘크리트법당 및 요사채 ●대불, 목불,조각, 닫집, 탁자, 문짝

기능직 중견 사원모집

자격 : 10년이상 사찰 및 고건축 분야에서 종사하신, 정직하고 성실한분을 (주)두풍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책임은 확실히 지고 약속은 꼭 지키는 기업입니다.

株式會社 斗豊産業 대표 02) 432-7777 전화 02) 439-3900

doo poong 서울 중랑구 망우동 496-8 (두풍 B/D)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순창고추장' 유래지 만일사 복원

무학대사 1만일 기도도량…입구비문엔 고추장 진상유래

고추장의 대명사 순창고추장의 원산지가 만일사(萬日寺)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이 만일사가 순창군에 의해 복원되고 있다.

맵지도 짜지도 않으면서 알싸하고 단맛에 개운한 맛이 감돈다는 순창 전통고추장. 물맑고 공기좋은 곳에 사는 순창사람들이 정성스레 빚어낸 전통고추장 탄생의 진원지인 회문산 만일사(주지 지성·선운사 회주)가 역사유적으로서의 사격을 갖춰가고 있다.

백제 무왕(613년)에 건립됐다는 만일사는 고려말 나옹선사가 제자 무학대사와 중창한 가람이다. 현재는 6.25당시 남로당의 최후 격전지였던 까닭에 모두 불타고 1954년 중건된 인법당 요사채 칠성각만이 사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사라는 명칭은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자 1만일 기도정진한데서 유래됐다. 이성계는 등극하기전 기도중이던 무학대사를 찾아오다 절밑 농가에서 점심으로 고추장에 보리밥을 비벼먹고 그 맛을 잊지 못해 왕이된 후 진상토록했다. 이때부터 비로소 순창고추장이 명성을 드날리게됐다.

◇순창고추장의 유래지인 만일사가 복원돼 역사의 숨결을 살린 테마관광지로 개발될 계획이다(사진은 만일사 전경과 비석).



순창군청은 지난해 고추장의 학술·문화적 가치를 지닌 만일사에 5억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법당(16.73평) 비문보호각(2.72평) 일주문(1.96평) 요사채(13평)를 복원하고 있다.

만일사 입구에는 관독불명의 비석이 있다. 이 비석은 원조고추장의 해법과 고추장의 유래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돼 만일사 복원불사에 결정적인 계기가된 명물.

원래 몸부분 비신이 3등분으로 파손돼 방치됐던 것을 1978년 시멘트로 붙여놓았다. 비석의 비문은 비바람에 마모돼 거의 관독이 불가능하나 상단부에 '太祖' '無學大師' 등의 문구가 뚜렷하다. 순창군청은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해독을 의뢰할 예정이며 주지 지성스님도 이 비문을 채록하여 관독에 고심하고 있다. 이 비석의 구조는 맨 하단부는 자연석 비대석과 높이 172cm 비신, 맨위는 머리갓에 해당하는 비개석으로 반달모양인데 높이가 53cm이며 비신두께는 12cm이다.

한편 순창군은 읍내에 1백40억원을 들여 60여가구가 들어서는 고추장 민속마을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관련 순창군청 조동호 공보실장은 "고추장 박물관과 전통식품연구회를 통해 역사적인 검증과 품질개선으로 순창전통고추장을 세계적인 식품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며 "만일사와 연결하여 역사의 숨결을 살린 테마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김원우 기자



◇순창 전통 고추장 기능인 안인영씨(오른쪽)가 고추장의 제조비법을 설명하고 있다.

순창고추장 맛의 비법

순창전통고추장 기능인 안인영씨(진상고추장 대표·대모암 신도)는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고추장 제조비법을 통해 지난 80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안씨로부터 순창고추장 제조비법을 듣는다.

시기 동절기인 11월부터 이듬해인 3월까지가 섭씨 15도 이하의 기온이 유지되므로 이 기간에 담가야 당화의 속도가 느리고 유산균의 번식이 느려 신맛이 생기지 않는다.

재료 3년이상된 묵은 간장을 이용하며 약간의 소금만을 사용한다. 또한 방부제 색소 화학조미료 설탕을 전혀 첨가하지 않는 것이 맛을 깊게하는 요인이다.

3년이상 묵은 간장 이용

만들기 ①색깔이 고운 초물 두물고추를 잘 말려 가루로 빻은후 찹쌀을 시루에 쪄서 된밥으로 만들어 절구통에서 반죽허놓은 메주와 고루 잘 섞는다. ②도너츠형으로 만든 떡메주를 여름철인 8-9월에 띄우면 곰팡이의 생육이 가장 활발한 26-29℃로 갖추게 된다. 이에따라 단백질의 분해효소와 당화효소가 풍부하게 생성되어 고추장의 특유한 감칠맛을 내게한다. ③만들어진 고추장은 장독에 담아 햇볕에 내놓고 나무주걱으로 위 아래를 저어주어야 골고루 발효되며 윤기가 흐르게 된다. ④만들어진 고추장은 6개월정도의 숙성을 거치는 것이 좋다.

심신의학 "마음으로 병 다스린다"

명상등 불교수행법 현대의학 한계 돌파구

정신·육체 조화 질병치료 노화방지 효과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생기고 또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심신의학이 연구 개발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질병자체의 치료에만 집착해온 서양의학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제3의학으로 불리는 이른바 '심신의학(心身醫學·MIND BODY MEDICINE)'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환경까지를 포함한 총체적 조화로써 완전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얼마전 분당 차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심신의학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데이비드 사이먼 박사(美 샌디에고 초프라센터 소장)는 심신의학은 인간의 의식을 우주의 1차적인 힘으로, 육체적 변화는 에너지와 정보의 2차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인체양자역학이론'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세포를 세분해 양자의 크기가 되면 정신과 육체는 일체화된 하나의 에너지와 정보흐름에 의해 지배되며 이흐름의 조정과 평형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쉽게 설명해서 심신의학은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정신력, 영양과 음식물의 균형, 명상, 운동과 요가 등의 근육 이완법 등을 통해 생체리듬을 조절함으로써 암 등 악성질병의 치료는 물론 노화방지를 통해 인간생명을 연장하려는 새로운 시도다.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은 명상. 명상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절대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발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심포지움을 주관한 차병원의 통증클리닉 최윤근 소장은 "심신의학은 마음으로 인해 병이 생기고 또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근본이론으로 하고 있다"며 "불교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된 새로운 의학이론"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먼 박사가 제시한 심신의학 치료사례를 보면 2천여명의 명상자 건강검진 결과 정규적으로 명상하는 사람에서 19-39세 사이에서는 54.7%, 40세 이상에서는 73.3%가 일반인보다 병원을 덜 찾았다.

심신의학은 현대의학의 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의학이론이나 불가에서는 옛부터 알려진 치료법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한명우 기자

백은선사의 건강비결

일본 백은(白隱 1685~1768)선사는 오백년 불출(不出)의 위인으로 불리워지는 선사다.

중병치료와 건강유지를 위해 '내관의 비법'과 '연소법'을 교시한 선사는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강조했다. 마음을 바르게하여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으므로 정념을 지키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❶마음이 피로할 때에는 신체의 각 기관이 약화되고 마음의 불꽃(火氣)이 솟아올라 쇠약해진다.

❷조그마한 병을 중병으로 여기고 근심하지 말라.

❸많이 근심하게 되면 점점 열이 오르게 되고 내장은 아픔으로 굳어져 생명의 뿌리도 보존하기 어렵게 된다.

❹병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망념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

❺얄팍하고 간교한 지식나부랭이와 욕망과 야심을 놓아버리고 무념 무상 무심하라.

❻소아를 버리고 부처님께 모든것을 맡겨 자연 그대로의 마음을 유지하라.

❼욕심을 없애 집착을 떠나고 심신을 비우게 되면 현묘한 기·진기(眞氣)·천지의 생기가 외부로부터 빈 마음으로 들어온다. 이 생기를 보존하면 병마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

❽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원기를 전신에 충만시키려면 한적한 밀실로 들어가서 이불을 펴고 위를 보고 누워서 조용히 눈을 감고 심기를 단전에 밀어넣는다. 그리고 콧등위에 부드러운 새털이 붙어있다고 상상하고 그 새털이 전혀 미동하지 않게 조용히 호흡하기를 3백번 한다. 그렇게 하면 장수할 수 있다.

❾반드시 공복을 느낄 정도로 식사하고 피로하기 전에 휴식한다. 배가 약간 고플때 조그마한 방으로 들어가 단정히 앉아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호흡하는 횟수를 센다. 하나에서부터 천까지 세면 이 몸 이 마음은 적연하고 몰연하게 천지와 함께 용해된다. 그러면 스스로가 천지에 가득차고 널리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❿정념코 정념(正念)공부보다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은 없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크기 : 6cm×7.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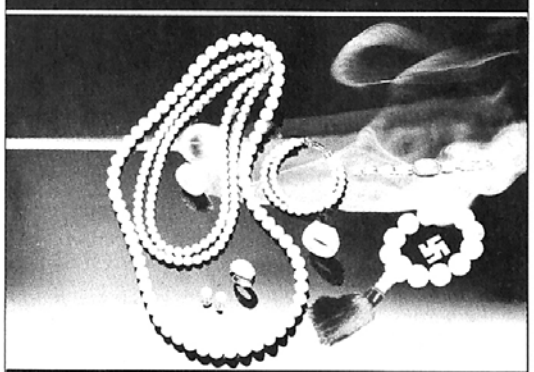
▲ 크기 3.5cm×10.5cm

■ **보급방법**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 스트레스나 피로에 쌓인 직장인, 수험생에게….
★ 4,50대 주부의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 장타력, 집중력, 판단력 골프머리가 잡혀갑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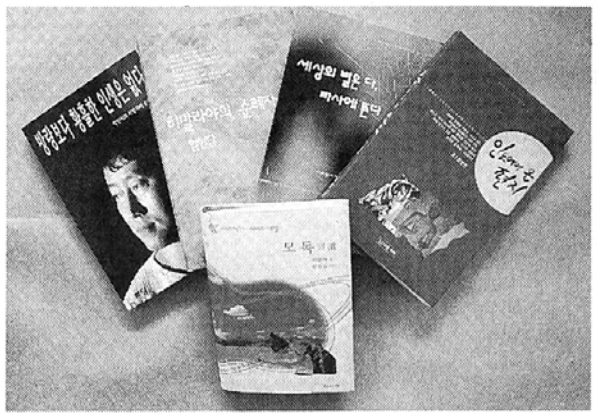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출판가 인도·티벳 '열풍'

박완서씨 '모독' 등 순례기 5권 잇달아 출간



"부처닮은 사람들이 욕심없이 사는 땅. 나의 관광행위가 신성한 땅에 다한 모독은 아닐까."

소설가 박완서씨가 최근 펴낸 〈모독(冒瀆)〉(학고재)에서 티벳의 순박한 자연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를 티벳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면서 한 말이다.

수년전부터 서점가에 인도권관련 책들이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모독〉을 비롯한 인도·티벳 관련서 5권이 잇달아 출간돼 다시 한번 인도·티벳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화제의 책들은 〈모독〉을 포함한 〈히말라야의 순례자〉(한길사) 〈세상의 벌은 다 라사에 뜬다〉(살림) 〈인도에서 온 편지〉(대흥기획) 〈방랑보다 황홀한 인생은 없다〉(초당) 등.

박완서씨 특유의 섬세한 관찰과 사유가 이국의 풍물속에 녹아있는 〈모독〉은 지구상에서 얼마 남지 않은 순결한 땅 티벳을 생생하고 풍부한 사진과 함께 문학으로 그린 티벳·네팔 여행기다. 정복되지 않은 순연한 사람들의 미소와 정갈한 삶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모독〉은 현대문명의 소용돌이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진지한 통찰을 갖게 한다.

〈히말라야의 순례자〉와 〈방랑보다 황홀한 인생은 없다〉는 히말라야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만의 독특한 종교와 정신세계를 탐색한 책들이다.

〈…순례자〉는 지난해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를 펴내는 등 4권의 인도기행서를 펴낸 임현담씨(산본 진단방사선과의원장)의 최신작. 눈물겨운 생활고에 시달리지만 정신만은 풍요로운 히말라야 주변 국가 사람들의 생활상과 번뇌를 털어버리려 정진하는 다양한 종교의 수행자들을 통해 구도의 열정을 다져나가는 순례기다. 작가 박인식의 〈방랑보다…〉는 히말라야 산맥 언저리에 사는 순례민족의 지난(至難)한 삶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살펴 본 기행문이다.

부처님 자취따라 '구도의 열정' 재충전
히말라야 주변국 순박한 생활상 소개

지난 90년 〈인도기행〉으로 문단에 '인도기행 붐'을 일으켰던 작가 강석경씨의 〈세상의 벌은 다 라사에 뜬다〉는 7년만의 장편소설이자 인도체험의 완결판이다. 인도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일상의 폭력에 지친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향해 떠나는가를 아름답게 그려냈다. 작품 곳곳에 새겨넣은 간디, 타고르의 시구(詩句)등은 인도의 깊은 정신세계를 전해준다.

고척중학교 교사인 김남선씨가 쓴 〈인도에서 온 편지〉는 불교의 8대성지 등을 둘러본 인도불적 순례기. 불제자로서 불적을 더듬어가며, 살아있는 부처님 자취를 시공을 초월해 만나는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여행기가 대종을 이루며 우화집, 소설, 티벳·힌두교경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간되고 있는 인도·티벳관련 책들은 내면적 성찰의 계기를 얻기 위해 영혼의 땅을 찾는 여행자들이 많아질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불심시심 〈77〉

다람쥐 옷섶에 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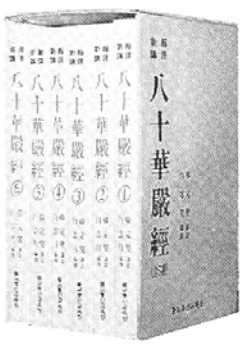
幾墟千古寺 (기허천고사) 몇 번이나 폐허된 천고의 절
寂寞掩柴扉 (적막엄시비) 쓸쓸히 사립문도 닫혔네
庭草知僧少 (정초지승소) 뜰에는 풀, 스님 없음 알리고
經苔認客稀 (경태인객희) 이끼 낀 길, 나그네 드물기 때문
鴉偸園瓜盡 (아투원과진) 채마밭 오이 까마귀가 다 훔치고
鼠穴土墻依 (서혈토장의) 쥐는 토담에 구멍 뚫어 숨어지내다
庵主忘機坐 (암주망기좌) 기미마저 잊고 앉은 주지스님에게
林猷假上衣 (임오가상의) 숲의 다람쥐 옷섶 올라 재롱하네

지난 호에 이어서 환성대사의 시를 더 감상하기로 하자. 이 시는 '제청평사(題淸平寺)'라 한 시이다. 그러니까 청평사에서 쓴 시이다. 웅장했던 옛날 자취는 없고 황폐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다. 이 시는 그러한 절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초라함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순수함을 불러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더욱 다정함을 느끼게 된다. 쓸쓸히 사립문이 닫히어 있다. 오고가는 나그네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내고 있는 스님조차도 귀하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뜰에 풀이 돋아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길에는 이끼가 돋았으니, 오고 가는 손님도 없는 것이다. 한적함이 지나쳐 적막을 느끼게 된다. 앞에서 표현된 적막이란 말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채마밭의 채소는 사람의 음식이 되기 이전에 산새들의 먹이가 되는 희사의 자비, 사람의 힘으로 쌓은 토담은 도적이나 외인의 침입을 막는 경계의 설정이 아니라, 오히려 쥐나 족제비의 안식처가 되었다. 속세의 삶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시문학의 표현이 원래 일상성의 초탈이라 한다면, 이런 시어들에서 느끼는 일상성의 이질화는 바로 스님들의 문학적 수완의 우수성이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시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과 자연은 어차피 대립적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 시에서는 대립적 마주봄이 아니라 폐사를 매개로 하여 격의없는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그 조화의 주인공이 바로 이 절의 주지이다. 모든 기미마저 잊은 망기의 스님이다. 이 스님의 친구가 다람쥐이다. 숲에 살아야 할 다람쥐가 숲 대신에 스님의 옷을 빌어서 기어 오르고 있다. '옷을 빌어 오르다(假上衣)'하는 표현이 참으로 절묘하다. 앞에서 보이려 했던 자연친화에 대한 절정의 결론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화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한정섭법사, 교재용 '축역신강 80화엄경' 펴내

제1권 1편에서는 〈화엄경〉 대의 총론을 통해 인도 중국 한국의 '화엄교사(華嚴敎史)'를 비롯 〈화엄경〉의 내용과 사상을 개괄적으로 해설했으며, 제6권 결어편에서는 '용수보살의 약찬게(略纂偈)', '청량국사의 현담(玄談)', '의상대사의 법성게(法性偈)'를 실어 〈화엄경〉의 대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화엄경〉 이해의 길잡이가 되는 강의교재용 축소판 〈화엄경〉 번역·해설서가 나왔다.

한정섭법사(나란다삼장불학원장·사진)가 최근 펴낸 〈축역신강(縮譯新講) 80화엄경〉(전 6권·불교통신교육원 刊)은 80권본 〈화엄경〉을 6권으로 축소 번역, 해설과 강의를 곁들여 방대한 〈화엄경〉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해설서다.

지난해 출간된 무비스님의 〈한글 화엄경〉(전 10권·민족사 刊)에 이은 또하나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 책은 누구나 간편한 마음으로 〈화엄경〉 공부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원문에 반복된 말이나 수식어를 줄여서 정리하고 제목을 붙여 이해하기 편리토록 함으로써 〈화엄경〉에 깃든 심오한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한 점이 돋보인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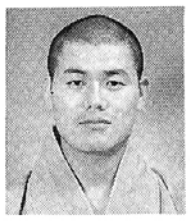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5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6	금강경대강좌	이 제 열	여시아문
7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8	禪 이야기	일 지	운 주 사
9	유식입문	이 지 수	시 공 사
10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구입문의:(02)737-0695

"영산재 짓소리 중심 의식이었다"

법현스님 밝혀…하루로 축소진행 영향 홋소리화



◇법현스님

과거 영산재는 짓소리 중심으로 의식이 진행되었으나 현재 영산재가 3일에서 1일로 축소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영산재가 홋소리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밝힌 논문이 나왔다.

짓소리란 가락이 길고 규모가 크고 장엄하며 어부(魚夫) 중심으로 대중이 합창하는, 한곡이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연주되는 범패의 한 종류.

짓소리가 영산재에서 어떤 의식에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지를 처음으로 밝힌 이 논문은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김법현 스님(동국대 강사)이 동국대 불교대학원 논총 제4집에 발표한 '짓소리 쓰임연구-영산재를 중심으로'.

어장들의 구전에 의하면 해방전후 짓소리는 73곡이 불리워졌다고 하나 현재 영산재에서 쓰이는 짓소리는 인성(引聲)등 모두 13곡.

과거에는 옹호게 산화락 등 모두 35곡이 불리워졌으나 현재 영산재에서 전승되어지는 짓소리는 인성(引聲), 거불, 관욕게, 목욕진언, 거령산(擧靈山), 영산지심, 삼귀두겁, 육거불, 삼남태, 특사가지(特賜加持), 구원겁중(시작전 불리는 지심귀명례), 오관게, 식영산 등이다. 이들 곡은 시련, 관욕, 괘불이운, 상단권공, 식당작법 의식에서 불리워진다. 시련과 신중작법, 괘불이운시 사용되는 옹호게는 반짓소리로 불리워지고 있고, 영축게 진령게 등 19곡은 홋소리로 불리워진다.

법현스님은 "따라서 반짓소리 3곡과 현재 영산재의식에서 사용되는 19곡 홋소리가 전에는 전부 짓소리로 불리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경숙 기자

23인의 '한지작품전'

28일까지 워커힐미술관…"조형언어 감상기회"

전통종이인 한지와 작가 스스로 개발한 수공종이를 재료로 이용해 독특한 조형언어를 구축하고 있는 중견작가 23인의 한지작품전이 오는 28일까지 서울 워커힐미술관(02-450-4666)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한지작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한지-그 이후'전은 예로부터 우리 생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던 한지의 용도와 그 정신세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지가 갖고 있는 독특한 한국적인 맛과 멋을 현대미술속에서 살려내려는 작가들의 새로운 실험정신을 볼수 있는 기회로 한지작업의 현주소를 낱낱이 살필수 있는 자리이다.

참여작가는 문복철 박철 류재구 이우현 함섭 한영섭 윤미란 씨 등으로 이우현씨는 작은 한지를 붙여 전체적으로 둥근 화면을 만든 '만다라'를, 이건희씨는 한지위에 컴퓨터 디스켓을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 정보전달 수단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원시세계에서 미래로'를 선보인다.

이상은씨는 빨강 노랑 초록 등 원색의 한지를 다양하게 붙여 마치 설치미술을 연상시키는 '기억의 끈'을, 한영섭씨는 거칠거칠한 닥지를 바위에 올려놓고 수숫대에 먹을 찍어 형상을 나타낸 '관계'를 출품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문화소식

문화재발굴 법인 추진

문화재관리국은 올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매장문화재발굴 전문법인 설립, 문화재보호법 개정, 한국전통문화학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도(古都)정비 및 문화재 보존에 예산을 대거 투입키로 하는 한편 '3·1운동 순국유적 기념관' 착공 및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물 전시관 건립, 경복궁 흥례문 복원공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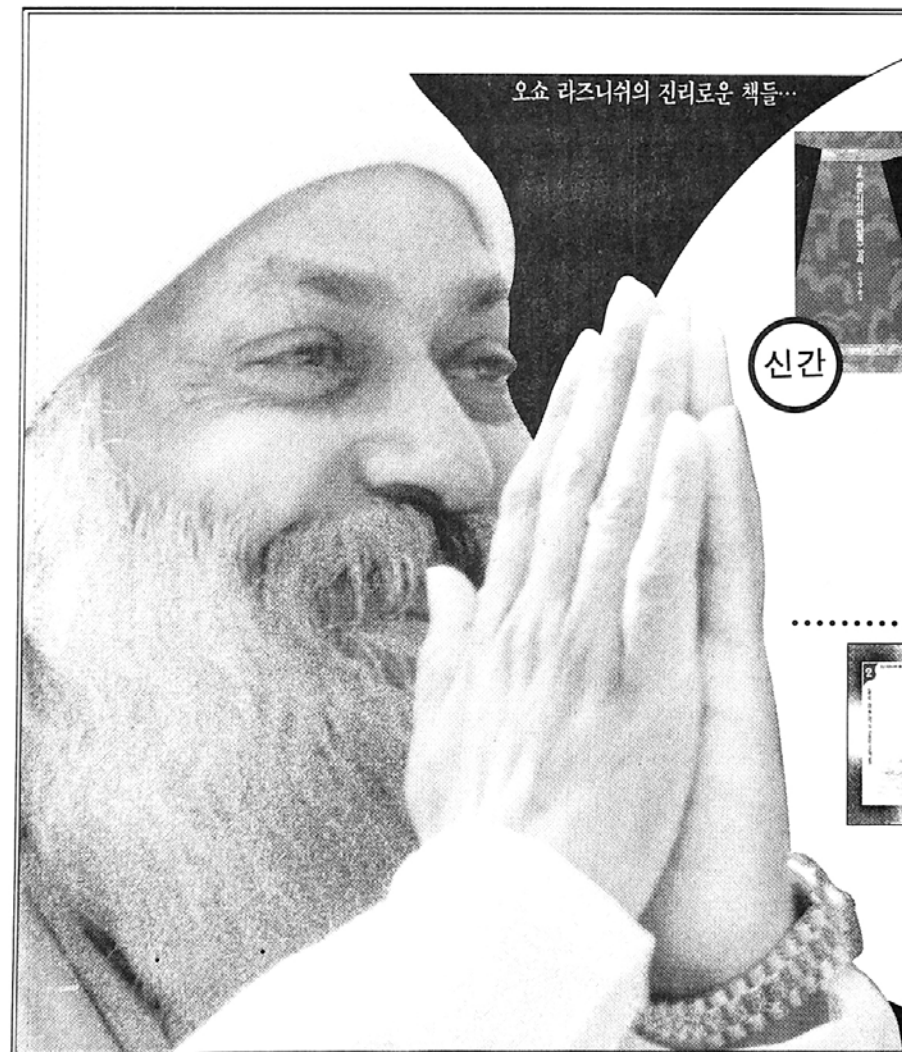
김봉준씨 수필집 펴내

불자 한국화가 김봉준씨(43)가 20년의 화업에서 추린 그림과 강원도 문막 산골에서의 단상들을 모은 수필집 〈산골화실에서 띄우는 편지-붓으로 그린 산그리메 물소리〉를 펴 냈다(강 刊). 온갖 자연의 모습과 산골에서 배우고 되돌아보는 생활과 창작에 얽힌 이야기, 미술관 등을 담았다.

한편 김씨는 오는 23일까지 관훈동 사비나갤러리(736-4371)에서 '대보름, 그 신명의 이미지전'을 갖고 있다.

합창·무용등 단원모집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2학년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합창단, 무용단, 쥬니어 오케스트라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기초능력 오디션을 거쳐 선발되는 단원은 정기발표회 유럽순회연주회 등 각종 예술행사에 동참하게 된다. 모집기간 3월 1일까지. (02)725-7527



신간

살아 있는 선(禪)
– 오쇼 라즈니쉬의 〈벽암록〉 강의

성철 스님은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문제일서로 유명한 **벽암록**, 그중에서도 선가에서 손꼽히는 선문답을 20여 개 골라 어렵고 불분명하기만 했던 선의 세계를 오쇼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풀어헤친다.

류원장 옮김 / 380쪽 / 값 9,000원



42장경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 자신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우주적 농담, 재치 있는 예화를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1권 삶의 해변에서 모든 조약돌 / 448쪽, 제2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440쪽
황광우·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말없는 자의 말 (양장본)

진허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이경옥·황광우 옮김 / 176쪽 / 값 4,800원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옛 선사들의 뇌성이 있다

!

TEL : 778-6826~7 FAX : 778-6828 성하출판

현불뉴스

병자년 동안거 22일 해제

불기 2540년 병자년 동안거가 지난 22일 영축총림선원을 비롯한 전국의 선원에서 일제히 해제됐다.

이날 조계종정 월하스님을 비롯한 총림방장스님 및 선원 조실스님들은 해제법어를 통해 각고의 수행정진을 거듭 독려했다. 이번 동안거에는 5대 총림선원을 비롯 전국 64개 선원에서 1천8백여명의 납자들이 안거에 참여했다.

독도서 3·1절 종교행사

불교 천주교 기독교 3개 종교의 3·1절 기념행사가 독도 앞바다에서 열린다.

극일운동시민연합(의장 황백현)은 오는 28일부터 1박2일동안 독도 앞바다에서 '제 1회 독도 3·1절 기념문화제'를 개최한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독도문화제에서는 각 종교별 기념의식이 거행된다. 또 결혼식, 사진촬영대회, 울릉도 밤낚시 및 독도낚시 시범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황백현의장은 "종교행사를 통해 조국의 평화와 자주를 기원하고, 독도가 우리땅임을 천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달 15일 조계종 행자교육

조계종 제12기 행자교육이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3주 동안 직지사에서 실시된다. 이번 행자교육은 96년 10월 15일 이전 입산행자 3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자는 10일부터 28일까지 각 교구본사와 교육원(직할교구)에 소정의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육원은 내년 행자교육부터 교육기간을 1주일 연장해 예식과 습의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룡사 신교대법당 낙성

육군 제 25사단 군법당 비룡사(주지 법사 심성렬)는 지난 18일 신교대법당 낙성식을 봉행했다.

2천여명의 불자장병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교대법당은 65평 조립식건물로 경남 기원정사(주지 혜원)의 후원으로 완공됐다.

민족돕기본부 '통신방' 개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는 최근 본부 활동소식과 관련단체 동향, 북한식량관련소식을 알리기 위해 나우누리에 통신방을 개설했다. ID는 '우리민족' 사용방법은 나우누리에서 GO KBSM을 누르고 곧바로 들어가는 방법과 사회단체 코너에 들어가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방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 등 2가지가 있다.

통신방 개설에 이어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통신내용 등 본부 및 북한 소식등을 전달하는 '주간뉴스레터'를 발간, 전국 각지에 무료보급하고 있다. 신청 (02)3672-5373

신도시 포교 '발등의 불'

일산경우 사찰 10여곳에 교회는 3백여곳

신도시가 기독교화되고 있다. 일산 분당 중동 등 수백만 이상의 주민이 집단적으로 사는 수도권 5대 신도시가 기독교세에 잠식당하고 있어 신도시포교에 비상이 걸렸다. 일산의 경우 사찰은 10여곳이지만 교회는 30배가 넘는 3백여곳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분당은 10여곳, 중동은 2곳, 평촌은 2곳인데 비해 교회의 수는 약 1백~3백여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일산에 연건평 2천8백여평에 법당, 지장전, 승방, 청소년회관 등을 갖추게 될 통도사 포교당 여래사가 기공돼 눈길을 끌고 있다. 통도사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신도시불사에 진력, 분당 연화사, 평촌 보림사 등 11개의 포교당을 건립했다. 이밖에도 금년에는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분당신도시에 6천2백여평부지에 전통양식의 사찰 기공식을, 서울 약사사(주지 현문)는 일산에 포교당을 건립하고 있어 실추된 신도시 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95년 일산에 원각사 포교당을 개원한 명덕스님은 "신도시는 곧 기독교 천국이라 할만큼 교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신도시 포교의 성공이 한국불교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수도권 5대 신도시 포교가 의기상황에 놓인 것은 종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한것이 가장 큰 요인. 종교부지는 신도시 계획단계에 공고하고 신청을 불하(拂下)한다. 하지만 교계는 재정적인 이유등으로 그동안 무관심해 왔다.

80년대초 안산 신도시가 조성될 당시 종교부지로 53곳이 지정됐으나 52곳이 교회로 1곳이 원불교로 불하됐다. 이로인해 안산 신도시는 기독교세가 판을 치고 있다. 안산 신도시조성에 참여했던 김의식씨(국토개발연구원)는 "종교부지는 각 종교의 차별없이 균등하게 불하받을 수 있다"며 "교계가 미래불교를 위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신도시 포교는 결코 요원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교회나 사찰의 수량으로 교세를 평가할 수는 없다. 사찰 1곳이 교회 수십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부지불하는 신도시포교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종교부지를 받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의욕과 종단 사업 등 연합단위의 정책·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중근 기자〉



◇지난 2일 일산에 들어설 매머드 포교당 여래사가 기공식을 가졌다.

법주사 토지임대 불자들에만

내년부터 호법차원

법주사(주지 혜광)가 소유토지인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지역 집단시설지구를 비롯한 '불교 성역화지역'의 토지임대를 불자들에게만 하기로 결정하고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이미 다른 관광사찰들에서 명문화 내지는 관례로 시행되고 있다.

법주사는 최근 종무회의 결의에 따라 97년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고지와 각서를 받고 있다며, 종교탄압이라는 일부 타종교인들의 반발이 있으나 호법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주사의 이번 결정은 충청북도가 불교취약지역으로 특히 법주사 사하촌을 비롯한 속리산 일대 주민의 약 2/3가 이교도로 파악되고 있어 포교에 위기의식을 갖게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사찰소유의 토지는 전법활동에 사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불자들에게 임대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부산의료원 법당 신축 자금난으로 불사 차질

부산시립의료원 법당 신축공사가 자금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 원장)을 비롯 이장수 同의료원 불자회 회장과 간병봉사단의 발원으로 시작된 법당 건립 불사가 공사비 3천여만원이 없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관계자들이 십시일반 불사금을 내고, 모금도 해보지만 역부족이다.

부산대 법당에 이어 부산에서 두번째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의료원 법당은 15평의 규모로 건립된다. 법당은 불자들의 기도도량으로써 뿐만 아니라 부산시립의료원 이용불자들의 불교시청각교육실과 자원봉사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효종스님은 "병마와 싸우는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효종스님과 간병봉사단은 92년부터 부산시립의료원에 불서(佛書)를 비치하고, 매주 1회 행려병동 환자들의 목욕, 이발, 경전읽어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문체부장관 성가곡 CD선물 '물의'

김한규 총무처장관의 "주일성수를 위해 공무원시험을 평일에 실시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종교행정 주무부서인 문체부장관이 장관실 내방객들에게 특정종교 성가곡 음반을 선물로 배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김영수문체부장관은 지난 연말부터 장관실을 찾는 손님들에게 정명훈 정명화남매의 연주곡 CD와 함께 소프라노 신영옥씨의 성가곡CD '아베 마리아'가 한묶음으로 포장된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신영옥씨의 '아베 마리아'에는 '놀라우신 주의 은총' '자비하신 주 예수님' 등 수록된 16곡 모두가 기독교 성악곡이다.

문체부장관 비서실 최헌호 비서관은 "세계적인 한국성악가의 노래라는 점에서 손님들에게 선물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당장 배포를 중단하겠으며,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사 대장경판전 지붕보수

빠르면 4월 실시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대장경판전(국보 제52호) 기와보수가 빠르면 4월중 실시될 전망이다.

해인사는 동·서사간전 지붕과 서까래, 법보전 기와에 대한 보수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이달중으로 보수와 관련한 설계 및 세부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또 3월중 이와 관련해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를 거친 4월중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대장경판전은 수다라전, 법보전, 동·서사간전 4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한 현대식 기와로 교체시 오히려 판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다.

두 김씨 퇴진 주장

월주스님 공개석상 발언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이 김대중 김종필 두 김씨의 퇴진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월주스님은 지난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현 시국에 관한 사회각계인사 간담회'에 참석, 한보사건과 이에따른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두 김씨도 문제가 있다. 정치적으로 너무 집요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뜻이 생긴다"며 두 김씨의 퇴진을 공개석상에서 주장했다.

월주스님은 이에앞서 지난 1월 22일 조계종총무원을 예방한 이한동의원과의 대화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 정권을 획득했거나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은 후퇴시켜야 하며, 정당도 보스를 중심으로 한 붕당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또 종교와 정치의 역할과 영역은 따로 있다고 전제, "종단에서는 특정정파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립을 선언하고 "그러나 선거를 왜곡되게 끌고간다면 바른 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BBS '2월 개국' 또 연기

시설공사 답보상태…경영권 다툼도 원인

당초 2월말로 예정됐던 불교청주방송 개국이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있다.

불교청주방송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험방송도 실시하는 등 2월 개국을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국을 코앞에 두고 자금난에 봉착, 스튜디오 방음공사와 시설설비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한데다 일부사입자들의 퇴직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방송 지방국의 운영은 1사 1법인을 원칙으로 '지방국 설립 및 운영규칙'에 따르게 되어있으나 불교청주방송의 건물무상임대와 자금지원을 약속한 정진택회장(충청매일신문)이 이를 무시하고 자금난을 문제삼아 인사권과 운영권 등 방송국 경영을 둘러싼 주도권을 잡으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회장측은 지난해 약속한 건물 무상임대 등을 번복, 방송국 개국과 관련된 자금 7억원을 불교청주방송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혜광)에서 부담한다면 방송국개국작업의 일선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음을 지난 12일 불교청주방송추진위에 구두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은자 기자〉

불교방송 회계 재감사

경리사고수습대책위

불교방송 경리사고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가 이영준 PD(편성제작국)와 박원식기자(보도국)를 수습위 실무간사로 영입하고 지난 12일부터 회계감사와 세무감사등 본격적인 재감사 작업에 착수했다.

구정연휴로 인한 공백으로 사건해결의 진전 속도가 한층 느슨해진 가운데 베트남에 도피중인 피의자 김선도씨(전 경리부차장)는 7일 비자만료시한이 지난 현재까지 베트남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불교방송노동조합은 지난 5일과 13일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노조는 사내 대출보증인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강구해 줄 것도 촉구했다. 피해액은 이중지급과 퇴사자들을 제외하고 총 2억1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김선도와 김현안의 가족을 방문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마음 의심치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이고 두려워함은 자기가 자기를 두려워함이니 그렇게되면 결코 부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참된 근본은 곧 부처라 나는 그 뜻을 따르는 수행자로서, 하인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나아가라. 내가 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 될 것이다. (한마음선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란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543/7306 퇴행성 관절염 전문 좌골신경통 (3회끝) 張三洙 합장 711/4370

포교원 안내
▶ 위 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 평 수 : 36평
■ 보증금 :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사찰(교환)운영하실분
위 치 : 경남 통영
연락처 : 0557)41-5516 015-516-7778

탈종공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찰명 : 원효암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 518번지
주 지 : 양재훈(천광)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7년 2월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사찰안내
■위치 : 경북 의성군
■법당 1동, 산신각1동, 미륵님, 요사채2동(현대식), 사용평수 :1300평
■가격 : 1억2천(가격절충가능)
연락처 : 0576)862-0674

간경화·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경력 사원모집
삼보에 귀의 하오며 함께 일하며 경전공부를 하실 도반을 모십니다.
■연령 : 40세이상 (정년퇴직자 및 명퇴자 환영)
■대상 : 남·여
연락처 : 739-8074~5 나찬귀합장

사찰안내
▶ 위 치 : 장호원(발전요충지)
▶ 대 지 : 437평 ▶ 법당 : 27평
▶ 사무실 : 15평 ▶ 요사채 : 42평(방15개)
▶ 매매가 : 3억4천(급매)
▶ 전 망 : 평당 150만 이상의 요충지
※ 부동산 사절(직접상담)
☎ 0336)643-9051 · 0331)224-4995

포교당 안내(하실분)
●위치 : 도봉구 수유리 32평 4층
●보증금 : 3천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 1천5백만원
※ 상담후 절충가능
전 화 : 902-9178 3492-4678

포교원 안내
▶ 위 치 : 서초 전철역 부근
▶ 평 수 : 60평·보증금 : 3000만원
※가격절충가
연락처 : 02)523-0241 523-0243

십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권 출간!
우학스님 수필·시·소설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좋은인연 053)475-3707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포교당 안내
▶ 위 치 : 부천시 중동 신도시 입구
▶ 전 세 : 3천3백만원
▶ 평 수 : 25평
연락처 : 032)656-7523

포교당 안내
▶ 50평 ·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기타절충
연락처 : 02)248-0479

포교당 하실분
▶ 위 치 : 의정부 신곡1동
▶ 평 수 : 35평 2층
■ 보증금 : 500만원, 월세 2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상담후 절충가능
연락처 : 0351)40-9923

이몸 끌고다니는 물건 찾아 ①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고질적인 백반증·상사와의 갈등으로 괴로운 나날 보내다 군법당을 찾았다

어려서부터 얼굴과 몸에 피부색이 없어져 흰색반점으로 남는 백반증을 앓았던 나는 사춘기가 되면서 타인을 더욱 의식하며 수치심으로 심한 열등감과 괴로움이 밀려왔다. 백반증만 완치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늘 하곤 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도 많이 맞았고 바르는 약, 먹는 약등 갖가지 치료를 다 해보았다.

그러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치료도 거의 포기했다. 그러던 중에 군대에 지원하여 군복무를 시작했다. 내가 근무를 시작한 곳은 어느 해안가 초소였다. 백반증은 자외선을 쬐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던터라 바닷가 해안초소에서 시간만 나면 바닷물에 몸을 담그며 햇볕을 날마다 일정시간 쬐었다.

군복무중에도 원래 성격이 원만하지 못했던 나는 상관들이 무엇을 시키면 순종하지 않기가 일쑤였고 몸의 병 또한 완치되지를 않아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나타나 있다. 설상가상으로 초소의 분대장에게 대들었다가 주먹으로 얻어맞아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들기까지 했다. 얻어맞은데 대한 분함을 이기지 못해 총을 난사하고 같이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실탄을 장전했지만 매스컴에 보도될 끔찍한 장면이 생생하게 연상되고 두려움이 앞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괴로움만 주고 낫지 않는 고질적인 백반증과 상사와의 갈등은 나를 더이상 버티기 힘들게 만들었다. 삶이 이렇게 괴롭다면 더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듯 했다.

그렇게 의미없고 힘겨운 하루하루가 계속됐고 논산훈련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 교육을 합하여 두어달 정도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 전반기교육에서는 법당이 없어 교회에가서 예배를 보았다.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고 일요일 내무반에 남아있으면 사역을 시키고 답답하니까 교회에 갔던 것이다. 예배 도중 목사님의 말씀에 부모님과 고향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었던지 내무반에 돌아와서는 동료들 얼굴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후반기 교육기간이 시작될 무렵 법당이 생겼다. 군에 오기전에는 절에 놀러나 가보았지 공부를 위해 가본적은 없었다. 교회는 어렸을때 마을 친구들과 과자나 선물을 준다고해서 여러번 가본적이 있다. 맛있는 과자와 즐거운 게임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가르침에 집 뒤켠의 장독대에서 조용히 무릎꿇고 기도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종교라는 불교에 대한 각별한 호감을 갖게 됐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법당을 찾았다.

처음 찾아간 법당에는 군종병이 없었다. 원광대를 다니다 입대한 사병이 지도를 해주었다. 〈보왕삼매론〉을 토론하는 방법으로 가르쳤다. 휴식시간에는 〈군법요집〉을 빌려와 몇차례 반복해서 읽었다. 팔정도, 십이인연법, 사성제등 생소한 용어를 익히고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읽는 길밖에 없었다. 후반기 교육때에는 군교육에 필요한 암기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군교육은 소홀히 한채 법요집 공부에만 열을 올렸다.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득이될 것 같은 생각에서였다.



그림 · 이준석

여러가지 훈련에 필요한 수칙들을 외우지않아 매일 기합을 받으면서도 불교경전을 빌려다 열심히 읽었다. 마지막 법회때 그동안 공부한 〈보왕삼매론〉 뜻을 적는 시험을 보았다. 나는 보왕삼매론의 내용중 "몸에 병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 하셨나니라"와 "세상살이에 곤란없기를 바라지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나니라"에 대한 뜻을 잘 적었고, 그에 대한 상품으로 육군법요집을 받았다.

박 민 수
〈광주광역시지산동 배재학원〉

RATANASUTTA

*ratana (빠알리어) 삼보, 보석

♦ Whatever spirits have come together here, either belonging to the earth or living in the air, let all spirirts be happy, and then listen attentively to what is said.

여기 모인 귀신들은 지상의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모두 기뻐하라. 그리고 주의하여 이 말을 들으라.

♦ Therefore, O spirits, do ye all pay attention, show kindness to the human race who both day and night bring their offerings; protect them strenuously.

귀신들이여, 너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힘겨워하는 그들을 돌보라.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60)

♦ Whatever wealth there be here or in the other world, or whatever excellent jewel in the heavens, it is certainly not equal to Tathagata. This excellent jewel is found in Buddha, by this truth may there be salvation.

이 세상과 내세의 그 어떤 부(富)라 할지라도, 천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라 할지라도, 여래(如來)에게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이 훌륭한 보배는 깨달은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사람을 구제하라.

*assisive (ad) 주의하여, 진실하게 *ye 너희들(thou의 복수형)
*offering (n) (신에게의) 제물을 바치는 것
*strenuously (ad) 노력을 필요로 하는, 힘든
*the other world 내세(來世) *jewel (n) 소중한 사람(물건), 보배
*Tathagata (빠알리어) 여래(如來), 여거(如去), 진인(眞人)

오중욱 기자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부산방송 개국 2주년

奉

불교부산방송 개국2주년을 맞아 400만 부산·경남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교부산방송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부처님 법음을 홍포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불국정토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祝

불기2541년 2월 1일
불교부산방송 임직원일동 합장

불교부산방송 프로그램 후원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은행구좌:국민은행 129-01-0011-308 ●예 금 주:불교부산방송 ●문의전화:(051)644-5114
●은행 온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불교부산방송으로 확인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FM 89.9 MHz

생활 속의 불교 (110)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배경을 가진 사람

"먼저 우리는 우리 속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힘, 불성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정원사가 꽃을 가꾸듯이 불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불성을 잊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여러해살이 식물이 계절에 따라 피었다 져도 이듬해 다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것을 알지만 자신들에게 그와같은 불성이 있다는 것은 잊고 있다. 아니, 믿지를 않는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일단 몸을 바꾸게 되면 과거의 기억을 깨끗하게 잊고 말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번의 생을 거쳐 지금이 순간 진화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음을 살펴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무가 이듬해에 다시 열매 맺을 힘을 갖고 있음을 믿듯이 우리 속에 부처 될 힘이 있음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화의 원동력, 그 불성을 믿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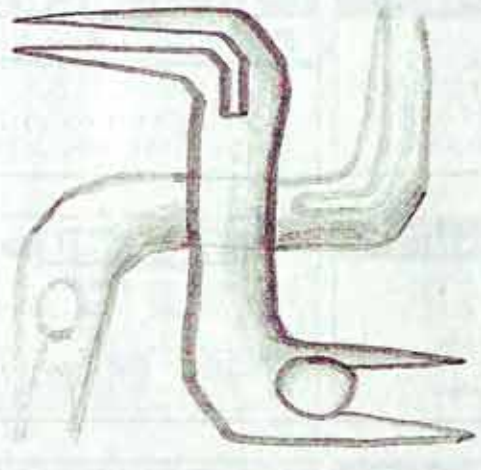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또는 성별이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성품을 지녔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역대 조사가 누누히 역설한 것이다.

그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누구나 부처될 근본 성품을 통해서 하나의 염주처럼 서로 꿰어져 있다. 뿐만아니라 역대 조사는 물론 나아가 부처님과도 한 줄로 꿰어져 있다. 따라서 역대 조사나 부처님과 나는 한 동아리, 한 통속, 한 핏줄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않는다. 세속의 배경이나 연줄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지만 부처님과 내가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좀체 믿으려 하지 않는다.

세속의 모든 삶은 믿음이라는 기초위에 세워진 건축물과 같다. 삶의 한 순간, 한 장면이라도 어떤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것은 없다. 그 믿음의 대상이 힘이든 정의이든, 또는 법, 계약, 약속이든 전통·관행·제도이든 간에 일체의 행위는 다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가령 네거리의 신호등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가령 화폐의 기능과 가치를 못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병원에 가서 의술을 못믿고 약의 효능을 불신한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단 한 끼니의 식사라도 거기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 요리사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단 십리 길을 가도 거기엔 자동차의 성능에 대한 믿음, 차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런 믿음이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우리가 그것을 구태여 믿음 운운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굳어진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주 듣고 배우면서도 그 가르침을 제 신호등만큼도 믿지 못하고 제 요리사만큼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불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지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런 학생은 이미 학생일 수 없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불제자일 수가 없다.

불제자라면 학생들이 그렇게 하듯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부처님 '처럼' 배우고 부처님'같이' 배워야 한다. 그게 바른 믿음인 것이다.

그런데 세속의 삶에선 이일 저일 곧잘 믿다가도 부처님 가르침에 이르면 왜 신심이 떨어지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량분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가르침은 제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육근을 굴려서 이치로 알아 낼 수가 없다.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조건이 붙지 않는, 이치로 분별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어린 아이가 무조건하고 부모를 믿는 것처럼 나의 뜻은 버리고 부처님의 뜻으로 사는, 그것도 일체를 맡기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

거기엔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따위의 사량분별이 없다. 믿음의 결과가 어떻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무조건이 아니다.

시봇말로 '백 중의 백' 부처님을 믿는데 무슨 조건이나 결과가 필요하랴.

협 찬 : 한아름식당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